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불붙은 전기차 각축전… 불타는 배터리 어쩌나

‘골머리’ 앓는 자동차업계

글로벌 곳곳 전기차 배터리 발화
스마트폰 이어 안전성 화두 부상
전기차 대중화, 비용 절감 필요한데
환경·품질 고려 해결책 마련 난항

수년 전 세계 스마트폰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배터리 발화 사고. 전기자동차 출시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최근 똑같은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세계 곳곳에서 각사의 전기차 배터리 발화 사고가 보고 되면서 전기자동차의 안전성 문제가 심각한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그동안 친환경성과 수 익성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면 앞으로는 안전성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달 초 제너럴모터스(GM)의 전기차 ‘쉐보레 볼트’ 7만7000여 대에 대한 안전 조사에 착수했다. 배터리가 탑재

글로벌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화재 사고

※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업체명	차종	사고 주요 내용
제너럴모터스(GM)	쉐보레 볼트	-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 화재 사고 3건 확인 - 2017~2020년형 볼트 약 7만7000대 대상으로 10월 조사 착수 - GM “배터리 안전성 시험 2500시간 이상” 주장 - 2011년에는 충돌 후 화재 사건 발생
포드자동차	이스케이프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미국 출시 내년으로 연기 - 유럽에서 동일한 차종 올여름 7건 화재 보고 - 현지서 2만500대 리콜 - 포드 “배터리 과열에 따른 뜨거운 가스 방출” 추정
현대자동차	코나	- 10여 건 화재 관련 전 세계에서 7만7000대 리콜 중
BMW	2시리즈 등	- 품질 이슈 관련 화재 위험에 약 2만7000대 리콜 - 거의 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종 해당
테슬라	모델S 모델X	- 작년 파나소닉 배터리 탑재된 차량들에 화재 -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 2012~2019년 생산된 모든 해당 차량에 대한 조사 착수
광저우자동차	아이온S	- 올해 5월과 8월 잇따른 화재로 당국 조사 착수

된 뒷좌석 하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화재 사고 3건이 보고된 데 따른 조치다. 이는 GM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포드자동차는 지난주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V) ‘이스케이프’의 미국 출시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에서 판매된 이스케이프에 대해 화재 우려가 부상한 탓이다. 현대자동차와 독일 BMW도 일부 차종에서 일고 있는 배터리 화재 우려를 해소

하기 위해 글로벌 리콜에 착수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현대차는 배터리 관련 화재 보고로 전 세계에서 ‘코나 EV’ 약 7만7000대를, BMW는 2만7000대의 PHV를 각각 리콜하기로 했다. 전기차 업계는 수년 전 배터리 발화 문제가 스마트폰 업계를 강타한 만큼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매우 민감해하는 분위기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발화하기 쉬워 과거에도 노트북과 태블릿 PC 등에서 화재의 원인이 된 바 있다. 무엇보다 전기차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스마트폰용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피가 커 화재 발생 시 인명 사고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위험도가 높다. 충돌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주차 중 일어난 사례가 많다는 점이 문제다. 일례로 한 쉐보레 볼트 차주는 차를 집 옆 충전기에 연결하는 도중에 화재가 일어났다고 NHTSA에 보고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제 조비용 절감과 에너지 밀도를 높인 배터리 탑재, 생산 확대라는 압박에 직면했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도 화재가 다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자동차업계를 대변하는 산업단체인 자동차혁신연합의 존 보젤라 대표는 “대부분의 경우, 배터리 화재 문제는 제조 공정상의 품질 문제나 배터리의 열과 전기 에너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간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회사들이

직면한 도전은 소니와 보잉 등의 제품에 들어간 리튬이온배터리에 문제가 생겼던 것과 비슷하다”며 “그러나 결국 꼬인 부분이 해결됐고, 결국 이 기술은 지배적인 동력원이 됐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비용이다. 전기자동차의 본격적인 상용화에는 배터리 생산 비용 절감이 필수인데, 환경과 품질을 고려하면 결코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데니스 그레이 LG화학 미국 연구법인은 최근 멕시코에서 열린 국제자동차산업회의(CIAM)에서 온라인 연설을 통해 “전기차 프로젝트로 자동차 산업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생산 비용을 낮춰 저렴한 전기차를 공급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날 배터리데이 행사에서 “공정 혁신으로 배터리 가격을 지금보다 56%까지 낮출 수 있다”며 “배터리 셀을 자동차 차체와 통합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원가를 다시 한번 떨어뜨리겠다”고 공언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ITC 최종판결 앞두고… LG화학·SK이노, 배터리 혁신 격돌

‘인터배터리 2020’ 오늘 개막

“세계적 기술” vs “발화 없었다”
제품 안전성 두고 미묘한 신경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을 닦새 앞두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격돌한다. 두 회사는 21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에 참여해 자사 기술을 뽐내는 한편 제품 안전성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펼칠 전망이다.



국내 최대 규모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0’이 21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날 전시되는 LG화학의 부스 조감도(왼쪽)와 SK이노베이션 부스 전경.

참가 업체 중 최대 규모의 부스를 마련한 LG화학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앞세우며 기술력을 강조했다. 전시 부스를 △코어존(Core Zone) △

모어 파워존(More Powerful Zone) △모어 이피션시존(More Efficiency Zone) △모어 스타일리시존(More Stylish Zone) △서스테인어빌리티존

(Sustainability Zone) △넥스트제네레이션존(Next Generation Zone) 등으로 구성했다. 코어존에서는 배터리 핵심 기술들을, 모어 파워존에서는 LG화학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킥보드·가전 등이 과거 대비 얼마나 성능이 향상됐는지를 강조한다. 모어 이피션시존에서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배터리 제품을, 모어 스타일리시존에서는 배터리를 탑재한 기기가 자유로운 디자인을 선보일 수 있도록 설계한 배터리 제품을 선보인다. 서스테인어빌리티존·넥스트제네레이션존에서는 그린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배터리 생산, 폐배터리를 활용한 재활용 사

업, 책임 있고 투명한 배터리 원재료 공급망 관리를 설명한다. 최근 무인기에 탑재해 시험 비행에 성공한 리튬황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도 선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슬로건을 ‘보다 안전하고, 보다 빠르고, 보다 오래가는 넥스트 배터리’로 정하는 등 안전성을 앞세웠다. 특히 2010년 배터리 공급을 시작한 이후 단 한 차례도 불이 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화재로 구설에 오른 LG 화학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터리와 관련해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고속 충전 속도 △장거리 주행 등에서 차별적 우위를 보여줄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또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역사와 주요 성과를 하나의 주제로 정해 자사가 업계 정통기업임을 알릴 계획이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당신의 능력개발 레시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담어드려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대표 인적자원전문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를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당신의 능력개발 레시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담어드려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를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D램·낸드 ‘양날개’…고부가 기업용 SSD ‘세계 1위’ 됐다

최태원 ‘10조 베팅’ 효과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 부문 인수에 대해 재계에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2년 SK하이닉스 인수, 2018년 도시바 메모리 지분 인수에 이어 또 한 번 통 큰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 나온다.

D램 부문 세계 2위 기업인 SK하이닉스는 D램 사업 비중이 72%(올해 2분기 기준)에 달하는 반면, 낸드는 24%에 그쳐 D램 가격에 따라 수익 변동성이 컸다. 2017년 옛 도시바(현 키옥시아)에 지분 투자를 단행한 것도 낸드 부문을 보강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낸드 부문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자 최 회장이 10조 원 넘는 자금을 들여 인텔 낸드 사업 인수라는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SK하이닉스는 꾸준히 낸드 기술력 확보에 공들여왔다. 2018년에 96단 4D 낸드를, 지난해에는 128단 4D 낸드 플래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인텔은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부문 최강자로, 업계 최고 수준의 낸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기술력과 관련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인텔의 올해 상반기 낸드 부문 매출액은 약 28억 달러(3조2000억 원), 영업이익은 약 6억 달러(6840억 원)로 영업이익률이 21.4%에 달한다. SK하이닉스는 수익성

주수익원 D램, 가격변동성 단점 낸드 인수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SSD 국제표준’ 주도한 인텔 품고 고부가 품목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 양호해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인텔의 솔루션 기술 및 생산능력을 접목해 기업용 SSD 등 고부가가치 중심의 3D 낸드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이다.

낸드 점유율 상승도 기대된다.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낸드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35.9%로 1위다. 이어 키옥시아(19%), 웨스턴디지털(13.8%), 마이크론(11.1%), 하이닉스(9.9%), 인텔(9.5%) 등의 순이다. SK하이닉스가 인텔 인수를 마무리하면 낸드 시장에서 약 20%의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인텔의 강점인 기업용 SSD 시장에서는 삼성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선다. 기업용 SSD 점유율은 올해 2분기 인텔이 2위(29.6%), SK하이닉스가 5위(7.1%)로, 두 회사를 합친 점유율은 36.7%에 달해 현재 1위인 삼성전자(34.1%)를 넘어선다.

SK하이닉스는 특히 SSD 시장 성장에

SK하이닉스, 인텔 낸드 메모리 사업 인수 개요	
인수금액	90억 달러(약 10조3104억 원)
양수목적	낸드 사업 경쟁력 강화
인수대상	- 낸드 메모리와 저장장치 사업(옵테인 사업 제외) - 낸드 SSD, 낸드 단품, 웨이퍼 비즈니스, 중국 다롄 공장 등
인수기준일	2025년 3월 15일
인텔 낸드 사업	- 올 상반기 매출액 약 28억 달러(약 3조1900억 원) - 영업이익 약 6억 달러(약 6840억 원)

주목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낸드 중 SSD 시장은 2024년까지 연평균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가운데 기업용 SSD는 연평균 23.9% 성장하며 전체 SSD 시장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인텔은 기업용 SSD에서 국제표준을 주도할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와 인텔은 2021년 말까지 주요 국가의 규제 승인을 얻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규제 승인을 받으면 SK하이닉스는 먼저 70억 달러(7조9800억

원)를 지급하고 인텔의 낸드 SSD 사업(SSD 관련 IP 및 인력 등)과 중국 다롄 팹 자산을 SK하이닉스로 이전한다.

이후 인수 계약 완료가 예상되는 2025년 3월 SK하이닉스는 20억 달러(2조2800억 원)를 지급한다. 그러면서 인텔의 낸드플래시 웨이퍼 설계와 생산 관련 IP(지식재산권), 연구개발(R&D) 인력 및 다롄 공장 운영 인력 등 잔여 자산을 인수한다. 인텔은 계약에 따라 최종 거래 종결 시점까지 다롄팹 메모리 생산시설에서 낸드 웨이퍼를 생산하며 낸드플래시 웨이퍼 설계와 생산 관련 IP를 보유한

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낸드 사업 인수는 장기적으로 낸드 시장 점유율 상승과 낸드 산업의 경쟁 구도 완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SK하이닉스는 기업형 SSD 점유율 확대 등 장기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경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SK하이닉스엔 긍정적, 부정적 요인이 반반”이라며 “메모리 산업의 합병이 전개된다는 점은 긍정적, 낸드플래시 사업의 단기 흑자 전환이 어렵다는 점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삼성과의 경쟁도, 들러리도 지쳤다” ‘메모리’ 털고 수익성 택한 인텔

“주요사업 CPU에 집중할 것” 반도체 기업 합종연횡 가속화

세계 반도체 업계의 전통 강자 인텔이 끝내 핵심 사업의 부진을 털지 못해 환부를 도려냈다. SK하이닉스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와 저장장치 사업을 90억 달러(약 10조3104억 원)에 팔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D램뿐만 아니라 낸드시장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 2강 구도’로 재편, 창업 이래 50년간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했던 인텔은 업계의 맨 기트머리로 밀려나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매각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면서 “인텔이 과거 핵심 사업이었으나 갈수록 고전하는 부문을 털어내고 사업 방향을 전환하는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 대한 인텔의 고민은 깊었다. 1960년대 말 메모리 반도체 업체로 시작한 인텔은 사업 초기엔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 1980년대 급성장하는 일본 기업들과 경쟁하며 수익성이 떨어지자 방향을 틀었다. 사업의 핵심을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으로 옮긴 것이다.

성과는 있었지만 수익성 우려를 떨치지 못했다. 인텔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서서히 발을 뺐다. 지난해 취임한 밥 스완 최고경영자(CEO)가 그 고삐를 당겼다. 작년에 스마트폰용 모뎀 사업을 애플에 매각한 것과 올 1월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3D 크로스포인트(Xpoint)’ 개발을 위한 합작사 지분을 15억 달러(약 1조7000억 원)에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 매각한 것도 그 일환이다.

인텔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와 저장장치 사업을 SK하이닉스에 매각한 결정적 배경에는 삼성전자라는 ‘넘사벽’이 있다는 게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플래시 메모

리에 대한 꾸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인텔은 세계 시장에서 약 34%를 차지하는 삼성의 들러리에 불과했다. 오죽하면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산자이 메모트라 CEO는 지난달 실적발표에서 “메모리 칩 시장이 수익성을 높이려면 업계가 설비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지금도 버거운 경쟁이니 메모리 시장에는 그만 들어오라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갈등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였다. 미국이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SMIC에까지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관련 반도체 기업들에 까지 불뚝이 튀었다.

인텔이 중국에 있는 유일한 주요 반도체 제조라인인 다롄공장을 SK하이닉스에 넘긴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 기업들과 거래하려면 미국 상무부에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반도체 업계 특성상 설계와 생산을 별도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처럼 복합적인 이유가 맞물리면서 기업 인수·합병(M&A)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7월 미국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 아날로그디바이스가 경쟁사인 맥심인티그레이티드를 209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고, 9월에는 엔비디아가 일본 소프트뱅크 산하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홀딩스를 40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AMD는 현재 경쟁사 자일링스 인수를 위해 협상 중이다.

인텔은 중요 사업 하나를 포기한 만큼 기존 주력 사업인 CPU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블룸버그는 “인텔의 과감한 포기는 향후 사업 전반에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고대영 기자 kodae0@

매일 하는 체지방 관리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골드

현대인의 문제적인 식습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리미엄 녹차 정제



고열량, 고탄수화물, 고당류 식이 섭취로부터 체지방, 콜레스테롤 개선
메타그린 골드의 녹차추출물이 고열량, 고탄수화물 식단이 잦은 한국인의 체지방 관리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도와 대사 건강을 케어합니다



현대인의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으로부터 항산화, 뼈 건강 관리
비타민C, 녹차추출물이 함유되어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생성되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며, 비타민D가 함유되어 뼈 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메타그린 골드만의 프리미엄 정제 기술 적용
아모레퍼시픽만의 녹차 정제 기술을 높여, 정제를 만들고 코팅하는데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97가지(아산화티타늄,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아산화규소)를 함유하지 않았으며, 장용성 코팅 기술로 더욱 속 편하고 부드럽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농산물 유래 건강기능식품 중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 **녹색기술제품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100% 유기농
국산 녹차
오실목 농장 직접 재배 관리



제품상당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바이탈뷰티

입맛대로 찬반 해석... 원전폐쇄 때마다 갈등 우려

탈원전 측 “경제성 평가 여부 떠나 안전성 고려 땐 폐쇄 정당”
친원전 측 “편법으로 탈원전 추진... 폐쇄 여부 다시 결정해야”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정책 결정 자체에 관해 판단하지 않아 친원전 측과 탈원전 측이 입맛대로 해석할 수 있어 앞으로 원전 폐쇄 때마다 갈등이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 수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심의, 의결했다.

당시 월성1호기는 조기 폐쇄하기로 하고, 신규 원전 6기(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건설 계획은 백지화했다. 또한 노후 원전 14기의 수명 연장

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현재 24기인 국내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원전 밀집 국가여서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가동 중단된 월성 1호기를 제외하고, 총 24기(24GW)의 원전이 운영 중이다. 새로 건설 중인 원전은 4기다. 신한울 1, 2호기는 공사 마무리 단계로 인허가를 앞두고 있다. 공론화를 거쳐 건설이 재개된 신고리 5, 6호기는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설계 수명이 2023년, 2024년, 2025년에 각각 끝나는 고리 2·3·4호기를 비롯해 한빛 1·2호기(2025년, 2026년) 등 노후 원전 14기는 설계 수명이 끝나는 대로 폐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2038년까지 국내에는 14기의 원전만 남게 된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보는 시각에



감사원이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 발전소에 가동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따라 달라진다. 경제성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탈원전 측은 경제성 평가 여부를 떠나서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폐쇄가 맞다고 해석했다.

임성희 녹색연합 전환사회팀장은 “감사원이 경제성 부분만 봤다고 하지만 결국 월성 1호기를 폐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감사원의 이번 결정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별로 영향을 줄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

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도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기존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을 유지하는 기조라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친원전 측의 해석은 이와 전혀 다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결과를 원전 무효화시키는 상당히 의미 있는 감사 결과”라며 “결국 적법한 절차가 아닌 편법, 꼼수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성 1호기 폐쇄 여부에 관한 결정을 다시 해야 하고, 지금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도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양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결과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앞으로 원전의 설계수명이 다할 때마다 계속 운전이 가능한지 경제성 등을 재평가하라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與 “결과 별개로 탈원전 계속” 野 “허황된 꿈... 의혹 밝힐 것”

감사원 결과 발표에 여야 대립

감사원이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부당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여야가 또다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립각을 세우는 등 정치권에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권은 이번 결과와 별개로 탈원전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현 정부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감사 결과는 원전 자체보다는 절차적 문제 여부를 들여다본 것”이라며 “단순히 경제성 판단 과정의 문제 하나로 원전을 조기 폐쇄할 수는 없다”고 말해 현 에너지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라는 의견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없었다”면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과 같은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성 평가는 향후 발생할 일에 대한 예측일 뿐,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고 토로했다.

반면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탈원전 정책의 상징과 같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밝혀진 만큼, 탈원전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농단이 자행되었음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부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없었다면, 최소 수천억 원의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었다”면서 “더 큰 문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는 현 정부가 공공기관을 동원해 법적 절차와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집어 던지는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감사원이 정의를 밝히는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조작을 감추기 위한 또 다른 조작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현 정권이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파괴한 행태였다”면서 “감사원 감사 형해화(形骸化)시킨 문 정부에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가정책 결정 과정을 하루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희석 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결국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며 “감사원장 압박을 위해 친인척 행적까지 들춰내고 ‘짜깁기 감사’까지 시도했지만 진실 앞에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에 대한 산업부의 압력, 산업부 장관의 눈감아주기, 자료 삭제 지시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비위 행위가 있었음에도 감사 결과는 진실을 말해 줬다”면서 “이제 ‘탈원전’ 명분은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한편, 청와대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특별히 의견 낼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200만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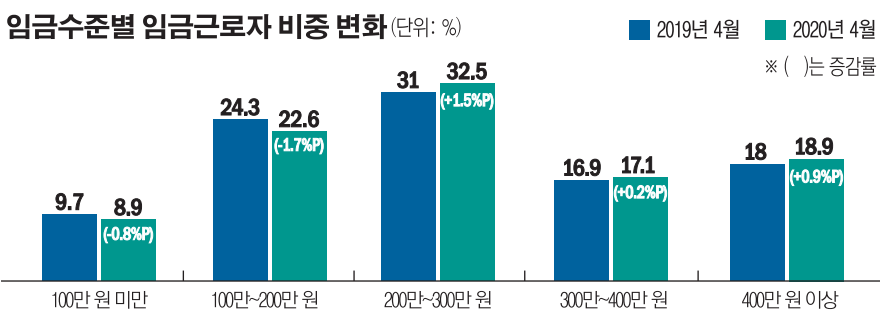
‘코로나發 칼바람’ 저임금 일자리 63만개 날아갔다

통계청 ‘상반기 고용조사’
임금구간 이동 아닌 대량실업
판매직 모든 구간 일자리 ‘뚝’
숙박·음식점업 등 크게 줄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은 주로 저임금 근로자에게 집중됐다. 월평균 임금 200만 원 미만 일자리가 1년 새 62만9000개 증발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임금 200만 원 미만 임금근로자는 627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2만9000명 줄었다. 평소라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구간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200만 원 이상 근로자도 24만7000명 증가에 그쳤다. 저임금 근로자 감소분의 대다수가 임금구간을 이동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잃었다는 의미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서비스업 전반이 급격히 위축돼서다.

이 같은 상황은 직업별 집계에서도 나타난다. 직업 중분류별로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는 100만 원 미만 근로자



가 각각 9만9000명, 14만5000명 감소했다. 판매 종사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모든 임금구간에서 근로자가 줄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전반적으로 하위 임금구간에서 상위 임금구간으로 이동하는 구조는 크게 변한 게 없지만 산업별로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업에서 취업자(임금근로자 포함)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임금수준별 구성비는 100만 원 미만이 8.9%로 0.8%포인트(P), 100만~200만 원 미만은 22.6%로 1.7%P 각각 하락했다.

한편, 성별 취업자 특성을 보면 직업별(소분류)로 남자는 경영 관련 사무원, 여자는 매장 판매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직업 쏠림은 성별 임금격차의 주된 원인이다. 직업 대분류별 월평균 임금 200만 원 이상 근로자 비중이 경영 관련 사무원이 포함된 사무종사자는 17.3%

에 불과했으나, 매장 판매 종사자가 포함된 판매 종사자는 42.5%에 달했다.

교육 정도에 따른 임금격차도 주로 직업 쏠림에 기인한다. 직업 중분류별 취업자 규모를 보면, 중졸 이하는 농·축산숙련직과 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이 가장 많았으나, 고졸은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과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비중이 가장 컸다. 대졸 이상은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이 가장 많았고, 이어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 순이었다.

이 밖에 연령대별(직업 중분류)로 청년층(15~29세)은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과 조리·음식 서비스직 순으로 취업자가 많았다. 청년층의 직업은 주로 최종학교 졸업 여부에 따라 갈린다. 30·40대는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 50세 이상은 농·축산 숙련직과 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비중이 컸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문 대통령 “택배 노동자 등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해야”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 등 코로나로 인한 노동시장 불평등을 개선할 특별대책을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며 “여성 노동자 비율이 특히 높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후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어 관계 부처는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일환 기자 whan@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240일 연장

앞으로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유·사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육아휴직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임신 근로자는 출산전후 휴가를 쓸 수 있는데 출산 전 최장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유·사산 위험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은 개정안 공포일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음에도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안 할 경우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공포일부터 1년 후 시행)도 담겼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성차별이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지만, 근로자의 구제 신청 절차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경우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했다.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을 거쳐 사업주에게 근로 조건 개선과 피해 규모에 따른 배상 등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업종의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박용만 회장-김동명 위원장 ‘원샷’

박용만(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치킨집에서 열린 호프미팅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정책 반성”

與 “재산세 감면 등 당정 협의”
중부세 감면 확대엔 선 그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오른쪽) 경기도지사가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 대표는 정부 정책의 잘못된 점을 시인한 반면, 이 지사는 정부 정책의 기초가 옳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미래주거추진단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잘못을 시인했다.

이어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20일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당내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문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재산세 관련 부분은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그동안 지적을 받았던 재산세 감면 등 부동산 정책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할 방안이다.

이 대표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한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실패가 아니다”며 반대 견해를 보였다.

이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 정책과 관련해 이낙연 대표가 잘못을 시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의견이 다르다. 실패가 아니다”라며 “기초가 맞는데 방향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공급은 평생 주택 개념



“더 강화해야”

으로 가야 하며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주택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초는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물샬틈없게 조금 더 완벽하고 강하게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보도한 민주당의 중부세 감면 확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금도 고령의 장기거주 주택자에 대한 중부세 공제율은 80%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중부세 감면 확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어 “몇몇 특정 언론발로 시작된 중부세 감면 확대와 관련해 당정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박준상 기자 jooon@

‘유타머스 의혹’ 이진아 靑 전 행정관 국감 출석 거부할 듯

유타머스 펀드 사건의 주요 인물로 꼽히는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 전 행정관이 정무위 행정실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불출석 사유서는 증인 출석일 3일 전인 이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13일 여야 간사 합

의로 이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의결했다.

유타머스의 대주주였던 이 전 행정관은 투자자를 속여 펀드 자금 수천억 원을 모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타머스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의 부인이다. 그는 김조원 전 민정수석 재직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

이윤리 국민의힘은 김 전 민정수석과 함께 김중호 청와대 민정수석도 운영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요구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1면서 계속

김 교수는 “서해는 외국에 있는 웬만한 큰 호수보다 작다”며 “중국에서 원전을 많이 건설하다 보니 방사성 물질을 방류하면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게 안전한 방법으로 오염수를 처리토록 압박할 방침이다. 고위 당·정·관계자들은 IAEA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일본에 요구기로 합의했다. 관계부처는 일본산 수입품 검역 강화 등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외되는 것 서글픈데... '노인복지 법안' 처리도 뒷전

〈글 쓰는 순서〉

1. 가난한 노후, 힘든 삶
2. 끊지 못한 가난의 굴레
3. 현 중장년층, 미래의 빈곤층
4. 이대로 두면 미래의 재앙
5. **결도는 입법, 손놓은 정치**
6. 노인빈곤, 지금부터 준비해야

노인 복지정책 관련 법안은 국회 법안 처리에서 밀리는 것이 현실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동산 관련 법 등 우선순위에 뒤쳐져 통과된 법안이 하나도 없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면서 노인 문제에 대한 입법부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100세 시대'에 걸맞은 노인을 위한 근본적 법안은 없는 상황이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된 법안은 527건으로 코로나19 관련 법안 2건만 처리됐다. 정부안을 제외하고 계류된 노인 법안은 512건 중 23건(4.5%)에 불과했다.

이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법 3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강법 3건 △노인복지법 10건 △노인일자리 지원법 2건 등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을 요양시설에 모시거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사회보험서비스의 근거 법이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노인 학대 문제가 심각해지자 노인요양기관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부정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벌칙을 받도록 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국가 지원금을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법안을 냈고, 정춘숙 의원은 재가 및 시설 급

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 등 코로나·부동산 이슈에 '찬밥' 신세
23건 발의안 중 통과 법안 없어
"일회성 아닌 장기적 제도 마련"

여비뿐만 아니라 특별현금급여의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은 보조공학사 자격을 향상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또 전동휠체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보험급여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인복지법'은 1997년 전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일부개정이 반복됐는데 이번 국회에서 전부개정안과 일부개정안이 같이 발의됐다.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노인 복지정책이 고령화 시대의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5년마다 노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인소득보장과 경제활동 지원, 노인교실, 노인 돌봄, 노인 주거 지원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담았다.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으로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체계적으로 대응해 노인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의도다.

일부개정안은 김태환 국민의힘 의원과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노인복지시설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로 변경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일자리 지원법'은 남인순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노인 일자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 노인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은 노인을 우선 고용토록 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 빈곤은 일회성으로 덮일 문제가 아니다"라며 "10년이든 몇 년이든 장기 계획수립이나 기초노년연금의 지속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정책 관련 법안 발의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안자 이종성, 기동민, 정춘숙, 남인숙, 박재호

- 주요 내용
 - 노인요양기관에 CCTV 설치
 - 장기요양기관 부정 급여비용 청구시 벌칙
 -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 20/100 국가지원금 지급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법

이명수, 이종성, 강선우

- 주요 내용
 - 보조공학사 자격 향상
 - 품질관리 전문기관 설치
 - 전동휠체어 피해보험 지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강법

김원익, 박재호, 오영호

- 주요 내용
 - 생활환경 인증제도 체계적 관리
 - 훼손된 편의시설 정기적으로 복정부 장관에 제출

노인복지법

기동민, 김태환, 이종성, 강선우, 윤후덕, 이은주, 정춘숙, 정점식, 최중윤, 강선우

- 주요 내용
 - 새로운 노인 세대 위한 전면개정
 - 5년마다 노인정책종합계획 수립
 - 노인복지시설 단독·공동주택 용도 허용
 - 지하철 이용시 운송사업자 비용 보조
 - 도시 거주 노인 선박 요금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법

진성준, 남인순

- 주요 내용
 - 노인일자리 지원 기본계획 5년 수립
 - 보건복지부에 노인일자리위원회 설치
 - 공공기관장 노인 우선 채용

“퍼주기식 법안 말고 연금 사각지대 없앨 방안 마련을”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
'기초연금' 30만원 혜택 못받아
"노인 삶의 질 향상 위한 법안 필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 복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일부는 '선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곧 다가올 대선 을 앞두고 여야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2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는 4428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입법부의 법안 발의 경쟁은 시작부터 치열했다. 특히 '노인' 표심을 위한 법안은 유독 주목도만 강조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지역구를 챙기는 법안을 남발하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인행복

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했다. 노인행복부를 통해 정책 전문성을 확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 산하에 노인복지청을 신설, 노인복지정책의 기획·종합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 배경은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노인을 위한 것이 분명하지만 문제는 재원이 다. 정부 조직이 커지면 인건비, 임차료 등 각종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관 이기주의, 칸막이 행정 등 비효율 경향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정치권에서는 2022년 3월 시행될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노년층을 의식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나 금액을 크게 늘리는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 확산하면서 기초연금 지출액은 급격히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 때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뀐 뒤 월 지급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수는 769만 명이다. 이 가운데 70%가 기초연금을 받는다. 수급 대상자는 540만 명 정도다.

최저 빈곤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 명은 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 생계급여는 정부가 정한 기준선과 가구 소득을 비교해 부족액을 보충해주는 현금복지이기에 새로 기초연금을 받거나 인상되면 그만큼 삭감돼야 한다는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노후보장과 관련한 국민연금 법안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혁돼야 하는데 표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선심성 법안의 구태를 답습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연금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굿네이버스

아이들 편에서
들어주세요

아이들의 목소리로
만드는 세상
굿네이버스가
함께합니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아이들 편에서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아동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대한민국 배터리의 꿈을 꾸다

1982년 SK 배터리 사업 비전 설정
1985년 SK 배터리 등 개발 연구소 업계 최초 설립
국내 최초, 최대의 정유·화학회사로 1962년 설립된 유공은 現 SK이노베이션의 전신임



대한민국 배터리의 꽃을 피우다

2004년 SK 배터리 안전 핵심소재 LiBS(분리막)
국내 최초, 세계 3번째로 상업화 성공. 2005년 본격 생산
2006년 SK 자동차용 중대형 리튬이온배터리 개발 성공
2009년 SK 배터리 글로벌 첫 수주(D사)
2010년 SK 배터리 탑재된 국내 첫 전기차 생산
2011년 SK 배터리 글로벌 슈퍼카 공급 업체 선정



대한민국 배터리, 세계와 함께하다

SK 배터리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의 지속적 파트너십
SK 배터리 글로벌 생산기지 건설(한국, 중국, 유럽, 미국)
SK 분리막 글로벌 생산기지 건설(한국, 중국, 유럽)



대한민국 배터리의 싹을 틔우다

1991년 SK 전기차용 배터리 개발 시작
1992년 SK 대한민국 G7과제 전기차 배터리 개발 주관기관 선정
1993년 SK 배터리 전기차 시험운행 성공
1996년 SK 리튬이온배터리 개발 시작



대한민국 배터리, 세계를 놀라게 하다

NCM622 기술 적용 배터리 세계최초 개발(2012)/첫 양산(2014)
NCM811 기술 적용 배터리 세계최초 개발(2016)/첫 양산(2018)
NCM9½½ 기술 적용 배터리 세계최초 개발(2019)/첫 양산(2022예정)
NCM은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소재이자 기술로, 전기차의 성능과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소
N(니켈)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최첨단으로 국내외 기업 중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SK이노베이션은 2010년 전후부터 글로벌 수주를 해 오고 있음

SK Innovation

세계를 움직이는 K-배터리
가장 먼저 출발했습니다
가장 멀리 나아갑니다

전기차 개념도 희미하던 38년 전,
에너지축적배터리시스템은 SK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은 이제 대한민국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석유 메이저, 잇갈린 기후변화 행보

지구 식히려는 유럽 M&A 큰불대는 美

유럽, 재생에너지 기술 집중할 때
美 코노코, 세일유업체 11兆 인수
대규모 합병으로 ‘몸집 불리기’

미국 석유 메이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 따른 암울한 시장 전망 속에서도 대규모 기업 인수·합병(M&A)에 나서고 있다. 유럽 석유 메이저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주목해 석유와 가스 사업 비중을 줄이는데, 미국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9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코노코필립스는 이날 세일유 업체 콘초리소시스를 97억 달러(약 11조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에너지 업계 최대 규모의 M&A다.

코노코가 코로나19 팬데믹 등 사상 초유의 위기 속에서도 대규모 M&A를 단행한 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 때문이다.

글로벌 석유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인한 수요 감소, 그로 인한 유가 폭락에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미국 대선이라는 큰 변수도 기다리고 있다. 11월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가 강화할 수 있다. 화석연료를 지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은 공공토지와 수역에 대해 새로운 석유와 가스 채굴 허가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청정에너지, 전기차 등과 관련된 녹색 인프라에 향후 10년간 1조 700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도 제시했고, 2050년까지 미국의 탄소배출량을 ‘순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석유업계가 되레 M&A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은 매우 아

미국 석유업계 올해 주요 M&A

코노코필립스 ① 피인수 기업 ② 규모 ③ 발표 시기
- 콘초리소시스 ② 97억 달러 ③ 10월
-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에너지업계 최대 규모 M&A
- 코노코, 합병 후 미국 최대 독립 석유업체로 부상
- 원유 생산량 하루 150만 배럴 이상

세브런

① 노블에너지 ② 42억 달러 ③ 7월
- 10월 초 인수 완료
- 발표 당시 거래액 50억 달러로 추정
- 이후 추가 하락으로 인수 규모 42억 달러로 줄어
- 지중해 동부 가스전 확보

데본에너지

① WPX에너지 ② 26억 달러 ③ 9월
- 세일유 강자 데본, 경쟁사 WPX 사들여
- 비용 절감에 따른 현금흐름 개선 목적

※ 출처: 뉴욕타임스(NYT)

이러니한 것이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업계가 살아남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대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M&A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노코에 앞서 세브런도 7월 노블에너지 인수를 발표했고, 지난달에는 데본에너지도 WPX에너지를 26억 달러에 사들이기로 하는 등 미국 에너지 기업들은 통합을 통한 업계 재편에 몰두하고 있다.

반면 유럽 정유업계는 석유 산업에 미래가 없다고 보고,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솔루션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일례로 영국 BP는 8월 “석유 생산량을 종전보다 40% 줄이는 대신 2030년까지 그린에너지에 연간 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지출 대비 10배 늘어난 것이다.

CNN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부상과 기후변화 위기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석유산업의 가치 평가가 약해지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의 대조적인 움직임은 ESG 투자자들에게 미국보다 유럽 정유업체를 더 선호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V자 회복’으로 中 ‘슈퍼리치’ 쏟아졌다

20억 위안 이상 갑부, 전년보다 579명 늘어...獨 GDP보다 많은 자산 보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나 홀로 ‘V자형’ 회복을 구가하고 있는 중국에서 자산 규모 20억 위안(약 3413억 원) 이상인 슈퍼리치 수가 2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국판 포브스’로 불리는 후룬연구소가 발표한 ‘2020 후룬 중국 부자명단’에 따르면 올해 20억 위안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중국의 슈퍼리치는 239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819명에서 579명(약 32%)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 중에서도 878명은 억만장자보다 10배 더 부자인 100억 달러(약 11조 4010억 원)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부호였다.

명단에 오른 기업가들의 총자산은 27조 5000억 위안으로 지난해 대비 거의 10조 위안 증가했다. 증가 폭은 영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이자, 지난 5년 간 총 증가액보다 많은 것이다. 특히 홍콩 사우스 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사주이자



중국 최고 부자인 마윈(사진) 알리바바그룹 창업자의 보유 자산은 1년 사이에 무려 45%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마윈의 재산은 총 558억 달러로, 1년 사이에 45%나 늘어났다. 알리바바 산하 핀테크 자회사인 앤트그룹이 홍콩과 상하이 동시 상장하면 마윈의 재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SCMP는 중국의 슈퍼리치들은 현재 글로벌 4위 경제 대국인 독일의 GDP보다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부호들의 급격한 자산 증가는 중국의 경기 회복과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결과다. 후룬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 억만장자들의 자산 규모가 코로나19 사태 동안 더 증가했다”며 그 이유로 중국 증시 호황과 정보·기술(IT) 기업의 기업

공개(IPO) 등을 꼽았다. 후룬은 “이는 중국의 경제 구조가 제조업이나 부동산 등 전통적인 부문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섰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코로나19 팬데믹 충격파로 맥을 못 추는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V자 반등’을 달성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전년 중국의 3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코로나19 진원지로 가장 먼저 경제적 타격을 입었지만, 바이러스 통제에 성공해 경제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1분기에는 1992년 이후 최악인 6.8%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2분기 3.2%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데 이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 최근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1.9%로 상향 조정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이들이 평창올림픽 해킹 주범”

미국 연방수사국(FBI) 소속 마이클 크리스먼(오른쪽) 요원이 19일(현지시간) 법무부 청사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17년 프랑스 선거 등에 대한 해킹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에는 해킹 혐의로 기소된 6명의 러시아 군 정보기관 요원 사진이 전시돼 있다. 미 법무부는 평창올림픽 당시 러시아 선수단이 도핑 시도로 러시아 국기를 달고 참석하는 게 금지되자 이들 6명이 보복 차원에서 개막식 중 수천 대의 컴퓨터 데이터를 지워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워싱턴/EPA연합뉴스

미국 연방수사국(FBI) 소속 마이클 크리스먼(오른쪽) 요원이 19일(현지시간) 법무부 청사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17년 프랑스 선거 등에 대한 해킹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에는 해킹 혐의로 기소된 6명의 러시아 군 정보기관 요원 사진이 전시돼 있다. 미 법무부는 평창올림픽 당시 러시아 선수단이 도핑 시도로 러시아 국기를 달고 참석하는 게 금지되자 이들 6명이 보복 차원에서 개막식 중 수천 대의 컴퓨터 데이터를 지워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워싱턴/EPA연합뉴스

美대선 “난장토론 금지”... 상대 발언 시 ‘마이크 OFF’

끼어들기로 난장판 된 1차 토론회
대선토론회 “재연 안돼” 음소거 결정

22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대선 후보 간 마지막 TV 토론회에 ‘마이크 음소거’가 도입된다. 끼어들기와 인신공격성 비방으로 난장판이 된 1차 TV 토론회 재연을 막기 위해 꺼내든 교육차적이다.

1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대선토론회위원회(CPD)는 22일 밤 9시 테네시주 벨몬트대에서 열리는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끼어들기나 발언 방해를 막기 위해 질의응답 동안 상대 후보의 마이크 음을 소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각 후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미국의 가족 △인종 △기후 변화 △국가안보 △리더십 등 6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 2분씩 초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때 상대 후보의 마이크를 꺼버려 발언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CPD는 “합의된 토론 규칙 하에 각 후보는 토론의 각 15분 코너가 시작될 때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하이오주 케이슬리저브웨스턴대학에서 열린 제1차 TV 토론회에서 동시에 발언하고 있다. 클리블랜드/AP뉴스

2분씩의 중단되지 않는 발언 기회를 얻게 된다”며 “양측 선거 캠프 모두가 중단 없는 2분간의 규정에 대한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공개 토론 시간에는 진행자인 크리스틴 웰치가 대략 동일한 시간을 양측에 각각 배분한다. CPD는 “방해하는 동안 소요된 시간은 다른 후보에게 되돌아갈 것”이라며 “공개 토론에 전념하는 동안 후보자들이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시청자들의 유익을 위해 시민 담론을 발전시키는 것이 위원회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11월 3일 대선을 12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두 후보의 두 번째 맞대결이자 마지막 토론회다. 2차 TV 토론회는 원래 15일로 잡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화상 방식의 토론 진행을 거부해 취소됐다.

앞서 9월 29일 열린 1차 토론 때는 두 후보가 초반부터 인신공격성 발언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특히 트럼프가 바이든의 발언을 중간에 끊고 개입하는 사례가 빈발, 관록 있는 진행자로 정평이 난 폭스뉴스 앵커 크리스 윌리슨도 이를 제지하느라 애를 먹었다. 이에 CPD는 토론회 규정 변경을 예고한 바 있다.

변효선 기자 hsbun@

〈상하이·홍콩 중시〉

IPO 문턱 넘는 앤트파이낸셜 ‘사상 최대 상장식’만 남았다

조달액 350억 달러 아랍코 능가 전망

전 세계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역대 최대어로 주목받는 중국 앤트그룹의 중국·홍콩 이중 상장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홍콩거래소가 19일 IPO 계획을 승인하면서 앤트그룹은 역대 최대가 될 중국 상하이와 홍콩증시 이중 상장 실현을 눈앞에 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이날 앤트그룹의 홍콩증시 IPO 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홍콩거래소도 같은 날 상장 필수 절차인 공청회를 비공개로 열어 이를 승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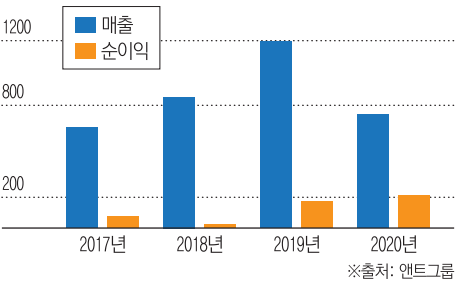
앞서 앤트가 상장할 또 다른 곳인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상하이증권거래소 커창반(과학혁신판·영문명 스타마켓) 이사회는 이미 9월 말 IPO 계획을 승인했다.

이제 남은 유일한 절차는 중국 최고 증권 규제기관인 증감회의 상하이 커창반 상장에 대한 최종 승인이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증감회도 이번 주 내로 앤트그룹의 IPO 계획을 최종 승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앤트는 2018년 중반 펀딩 라운드에서 기업 가치가 1500억 달러로 평가됐다. 그러나 앤트의 밝은 사업 전망이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IPO 시 시가총액이 2800억 달러

앤트그룹 실적 추이

(단위 : 억 위안) ※ 2020년은 상반기 기준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앤트는 이번 IPO로 약 350억 달러(약 40조 원)를 조달할 계획이다. 이대로 증시 상장이 이뤄지면 앤트는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업체 사우디아람코가 세웠던 역대 최대인 294억 달러 IPO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앤트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의 결제 앱인 알리페이에서 출발했다. 알리페이는 현재 실질 사용자가 약 7억 1100만 명에 달하며 커피에서 부동산 구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제가 이뤄져 중국인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앤트는 알리페이 외에도 세계 최대 메니마켓펀드(MMF)인 ‘위어바오’와 펀드 투자 플랫폼 ‘마이위바오’를 거느리는 등 종합 핀테크 그룹으로 우뚝 섰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허인 국민은행장 3연임... 내년까지 '리딩뱅크' 진두지휘

대추위, 차기 후보로 선정

코로나 위기 속 '리딩뱅크' 수성
수익·리스크 관리 '두 토끼' 잡아
내달 중 자격검증 거쳐 최종 확정
사실상 국민銀 3연임 최초 사례



허인<사진> 국민은행장이 3연임에 사실 상 성공했다. 역대 국민은행장 중에는 3연 임 사례가 없었다. 허 행장이 첫 사례다.

KB금융지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는 20일 오전 회의를 열고 차기 국민은행장 후보로 현 하인 행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허 행장은 국민은행 내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의 자격검증 및 심사, 주주총회 등을 거쳐야한다. 임기는 내년 말까지다.

앞서 대주위는 지난 1년간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위해 은행장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내·외부 후보 풀을 준비해왔다. 지난 9월 28일에는 은행장 후보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중지를 모은 바 있다.

대추위는 허인 행장의 그간 경영 성과를 높게 평가, 차기 행장 후보로 선정했다. 포스트 코로나19시대의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KB국민은행에 걸맞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추위 관계자는 “국내외 영업환경이 어

려운 상황속에서도 리딩뱅크의 입지를 수
성하고 있는 점, 빅테크 플랫폼 기반 중심
의 금융 생태계 변화에 따라 변화가 필요
한 경영상황, 계열사 핵심역량 협업을 통
한 시너지 수익 극대화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허 행장을 차기 후보로 선정했다”
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허 행장은 1988년 장기신용은행에 입행한 후 국민은행 여신심사본부 상무, 경영기획그룹 전무, 영업그룹 부행장 등을 거쳤다. 2017년 11월 국민은행장에 취임한 뒤 2019년 한차례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국민은행 역사상 3연임은 첫 사례다. 민병덕 전 행장은 3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이진호 전 행장은 KB사태로 중도 사임해 1년 2개월의 임기를 지냈다. 과거 강정원 행장이 2연임에 성공해 역대 최장

수 임기인 '3+3년'을 부여받았으나 중도 사임해 5년 8개월 동안 재직했다.

허 행장이 3연임에 성공한 건 대내외적 인 요인이 고루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허 행장은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평가다. 지난해 당기 순이익의 기준으로 은행권 1위를 기록하고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리딩뱅크' 자리를 지켰다. 특히 올해 금융권을 흔들었던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도 피해갔다.

행장의 짧은 임기가 단기적 성과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허 행장 3연임을 도왔다. 짧은 임기의 CEO는 장기적 안목보다는 시간적 시간으로 사업에 접근할 여지가 크고, 자산 증대 등 단기적인 양적 수치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짧은 임기 때문에 단기적 성과를 내야했던 과거의 방식이 아닌 장기적인 경영 안목이 금융권 내에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라며 “KB금융 내에서도 허 행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서지연 기자 sjy@

KB금융, ESG 채권 5000억 발행

국내 지주사 첫 원화 발행

KB금융지주는 원화 5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형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을 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금융지주사 중 원화로 ESG채권을 발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발행된 ESG 채권은 친환경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채권'이다. 당초 모집예정금액은 3000억 원이었으나 증권사, 보험사, 공제회 등 다양한 투자자의 관심으로 8540억 원의 수요가 몰려 5000억 원으로 증액 발행됐다.

5년 콜옵션인 4350억 원 규모는 금
용권 최저 수준의 금리인 3%, 10년

콜옵션인 650억 원은 3.28%의 금리로 발행됐다. KB금융은 이번 발행으로 자본 적정성이 탄탄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기업의 환경, 사회적 책임 실천과 선제적인 친환경 경영을 위해 쓰인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채권 발행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KB금융은 실질적인 ESG 경영 실천을 숏선수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금융그룹은 앞서 9월 국내 금융 그룹 최초로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신규 프로젝트파이낸싱 및 채권인수를 중단하기로 하는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며 ESG 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수빈 기자 bean@



권광석(왼쪽 세 번째) 우리은행장이 19일 서울 역삼동 GSE타워 6층에 위치한 TCE강남센터 개점식에
서 임직원, 고객과 함께 테이블을 커팅하고 있다. 사진제공 우리은행

‘30억 이상’ 고액자산가 집중 관리
우리銀 ‘PCIB’ 1호점 오픈

TCE 강남센터 개점

우리은행이 자산 30억 원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전용 지점을
열었다.

우리는행은 지난 19일 서울 역삼동 GS 타워 6층에 ‘Two Chairs Exclusive 강남 센터(이하 TCE 강남센터)’를 개점했다고 20일 밝혔다.

TCE 강남센터는 우리은행의 초고액자산가들을 위한 PCIB 적용모델 1호 영업점이다. PCIB 모델은 프라이빗뱅킹(PB)업

무와 기업·투자금융(CB·IB)업무를 결합한 고객 서비스로 기존 개인고객의 자산관리 뿐만 아니라 법인고객의 자산관리와 자금 조달까지 지원하는 종합 금융솔루션이다.

센터에서는 △부동산·세무 컨설팅 △기업 재무상담 △글로벌투자지원 △외부 회계·법무법인의 제휴 등을 제공한다.

지난 7월 TC 프리미엄 강남센터에 자산
관리 영업전문가(6명), 법인 영업전문가
(3명)을 우선 배치했다. 약 3개월 동안 준
비기간을 거쳐 TCE 강남센터를 열었다.

김범근 기자 nova@

일 밝혔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는 배달과 운전 등
노동력을 제공한 시점으로부터 길게는 56
일 후에야 임금을 정산받는 실정이다.

신한카드가 개발 중인 서비스는 이러한
정산 주기를 주 단위로, 더 짧게는 일 단위
로 당겨 이르면 노동력 제공 다음날 소득
이 정산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지난 8월
신한카드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특허 출원
을 신청했다. 박은평 기자 pepe@

박은평 기자 pepe@



“차별화한 기업금융 노하우로 ‘名品 외자기관’ 도약”

IBK기업은행

윤상운 중국법인장

“중국에서 혁신 성장을 기반으로 국책은행의 소임을 완수하겠습니다.”

윤상운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장이 밝힌 내년 목표다. 윤 법인장은 “2026년까지 기업은행 중국 법인이 효과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성장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실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법인장 직속의 경영 혁신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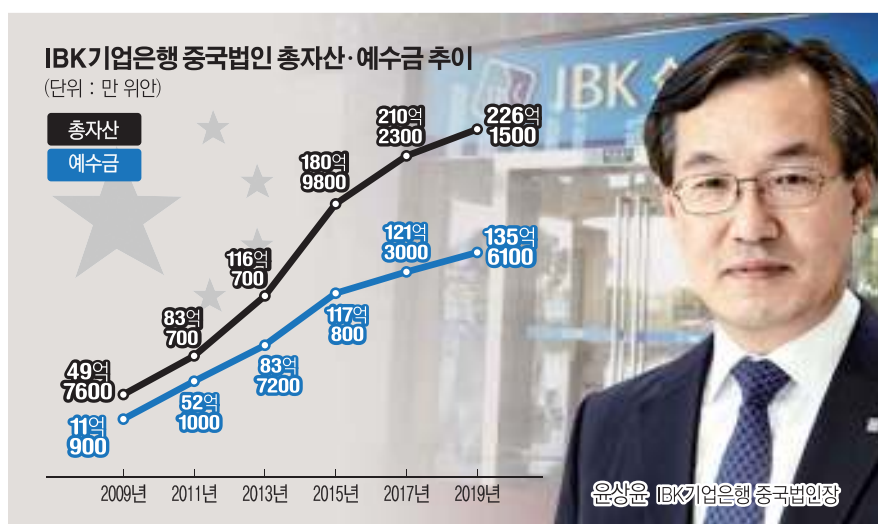
윤 법인장은 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쌓고 이에 상응하는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는 것이 올해 목표”라고 밝혔다. 올해로 설립 11년을 맞은 기업은행 중국 법인은 앞서 지난해 설립 10주년 행사에서 ‘혁신·차별화·동반성장’ 등을 통한 명품 외자 금융기관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올해 기업은행 중국 법인은 이같은 비전의 기초를 닦고 초석을 다졌다. 윤 법인장은 “2019년

중국 진출 기업 지원 역할 최우선 법인장 직속 TF로 경영혁신 발판 여신특별운용기준 마련 애로 해소 현지 우량기업 맞춤형 상품 개발

부터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여기에 코로나19라는 변수까지 발생해 목표달성에 다소 난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도 끄떡없다 발 빠른 대처=중국 법인은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우한에도 지점을 두고 있어 사태 초기부터 긴박하게 대응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며 이상 상황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해왔다.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은 모바일 앱으로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체온을 점검했다.

윤 법인장은 “거려하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여신특별운용기준’을 제정해 긴급형 금융 애로 상담 창구를 운영했다”며 “상담 창구로 만기 연장, 할부금 일시 상환 전환 등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 사항을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중국



법인은 또 상담 전용 창구를 지역별로 설치해 중국 현지에서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과 교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한국 본점과의 소통에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했다. 윤 법인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동사회(이사회)도 베이징과 한국에 있는 동사(이사)들을 고려해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연락처 비결, 기업금융 노하우=중국은 한국과 비슷하게 은행 간 경쟁이 심화된 시장이다. 지난해 기준 중국 내 전체

행 수는 4607개로 가장 많은 지점을 보유한 농촌상업은행의 지점 수는 23만 개다.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중국 전역에 16개 지점을 보유한 소형 외자 은행임에도 한국 기업들과 동반 성장하며 괄목할만한 자산 성장을 이뤄왔다. 윤 법인장은 이러한 기업은행 중국 법인의 강점으로 ‘기업금융 노하우’를 꼽았다. 윤 법인장은 “한국 기업은행의 기업 금융 비법과 기업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어 중국 현지에서도 이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기업은행

중국 법인은 기업 지원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을 바탕으로 영업과 직원 교육 활동 등을 통해 창립 이후 자산을 꾸준히 늘렸다. 2009년 이후 연평균 자산성장률은 18.35%, 예수금성장률은 31.92%였다.

기업은행 중국 법인은 또 보수적인 배당 정책을 폈다. 성장과 수익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윤 법인장은 “금융지원의 수익을 중국 법인에 유보해 은행업 영위를 위한 기본 체력을 강화했다”며 “이를 원동력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지원하는 활동 등 국책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업은행 중국 법인은 현지형 차별화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정책은행 역할 확대를 위해 한국 기업 맞춤형 상품을 출시해왔다. 기업은행 중국 법인은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 중국 현지 우량기업과의 점진 증대를 목표로 현지형 상품 개발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포트폴리오 개선을 통해 안전성, 수익성을 강화하고 중국 공민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다.

문수빈 기자 bean@



IBK기업은행 중국 법인 건물.

해외 진출 中企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확대

정부기관과 협약 기업활동 도와 미진출 지역 금융 사각지대 해소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이 가는 곳에 IBK도 간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을 지원한다는 국책은행의 역할에 맞게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는 뜻이다.

기업은행은 1990년 미국 뉴욕 점포를 시작으로 중소기업 진출이 활발한 아세안 지역 등 12개국에서 59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텐진 △칭다오 △선양

△엔타이 △쑤저우 △전진 △우한 △베이징 등에 진출했다. 인도네시아에는 △자카르타 △자바 △수마트라 △칼리만탄 등에 국외 점포가 있다. 이 외에도 미국 뉴욕, 일본 도쿄, 홍콩, 영국 런던, 베트남 호찌민과 하노이, 인도 뉴델리, 필리핀 마닐라, 캄보디아 프놈펜 등에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돕고, 미얀마 양곤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현지화 추진과 중장기적 수익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진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

분 투자,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에 단계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다음 진출지로 미얀마를 선택했다. 이후 기업은행은 중국, 베트남을 잇는 차세대 글로벌 생산기지로 미얀마 현지 법인 설립 인가를 4월에 취득했다. 미얀마 현지법인은 12월 영업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기업은행은 특유의 강점인 중소기업금융 역량을 글로벌 차원에서 활용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사업의 기반을 닦고 있다. 이 연장선에서 현재 기업은행은 한국형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금융 프로세스와 IT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다.

기업은행이 특히 집중해온 중국 법인은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거래 기업 경영 컨설팅 등 비금융 분야의 서비스 지원도 지속해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한국기업의 성장 지원을 여러 방면에서 돕는 것이다. 더불어 중국 지점이 있는 지역의 시 정부 등 현지 기업 관련 주요 기관과의 협약으로 현지 기업과 한국 기업의 거래를 연결해 무역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기업은행의 목표다. 해외 유수의 은행과 업무 협약(MOU) 체결을 통해 당해 미진출 지역에서도 중소기업에 지원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할 전망이다. 문수빈 기자 bean@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에서도
간단한 접속만으로 재택근무부터 통합 경영관리까지 완벽하게
더존이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 정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할인’에 ‘정부지원’을 더하다! 단 40만원만 부담
50% 90%

비대면 업무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로 「홈피스 올인원 팩」
(‘Home + Office’ All in One Pack)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국민인증서의 시대

KB모바일인증서로 열다



● KB모바일인증서 발급 경로: KB스타뱅킹 > 인증센터 > KB모바일인증서 > 인증서발급/재발급

● 준비물: 본인명의휴대폰, 신분증



쉽고 빠르고 간편한 로그인

패턴, 지문, Face ID 중
선호하는 방식으로 로그인



유효기간 없이 평생 사용

한 번 발급만으로 갱신이나
재발급 필요없이 사용 가능



폭넓게 활용하는 통합 인증서비스

KB금융그룹 주요 계열사와 플랫폼에서
다양하게 활용

※ KB모바일인증서는 14세 이상 1인 1기기만 발급 및 이용이 가능하며, 장기 미사용(1년 이상)시 인증서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용채널, 이체한도 및 이용기기 등 KB모바일인증서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1863호(2020.09.16), 광고물 유효기한 2021.12.31까지

KB 국민은행

초프리미엄 TV의 진수...1억짜리 ‘LG 롤러블’ 출시

‘시그니처 올레드 R’ 보니

명품시계처럼 명장이 수작업 생산
스피커 덮은 천까지 덴마크 명품
연 2회 특별점검 ‘VVIP 서비스’

LG전자가 세계 최초 롤러블(Rollable)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R(모델명 RX)’를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LG전자는 20일 온라인으로 LG 시그니처 올레드 R 론칭 행사를 열고 LG전자베스트샵 강남본점, 롯데백화점(본점), 신세계백화점(강남점, 센텀시티점), 현대백화점(목동점, 무역센터점), 롯데하이마트 잠실점 등 국내 프리미엄 가전 매장에 순차적으로 제품 진열을 시작한다. 제품 출하가는 1억 원이다. 초(超)프리미엄과 희소 가치를 동시에 원하는 최상위 수요를 겨냥했다.

LG전자는 20일 오전 11시 온라인으로 공개한 LG 시그니처 올레드 R 론칭 행사에서 롤러블 TV가 갖는 의미와 LG전자가 확보하고 있는 올레드 TV 기술 리더십을 소개했다.

이 제품은 화면이 말려 들어가는 정도에



따라 기존의 정형화된 TV 폼팩터로는 불가능했던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전체 화면을 시정할 수 있는 풀뷰(Full View) △화면 일부만 노출되는 라인뷰(Line View) △화면을 완전히 없애주는 제로뷰(Zero View) 등을 지원한다.

라인뷰는 음악, 시계, 액자, 무드, 싱크

홈 홈보드 등 총 5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드 모드를 활용해 마치 집 안에 모닥불을 피워 놓은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ThinQ 홈보드로 TV와 연동된 집 안 스마트기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식이다.

화면을 완전히 숨기는 제로뷰는 그 자체

로 인테리어 오브제 역할을 한다. 움직임을 감지하는 모션 센서를 탑재해 사용자가 다가가면 웰컴 조명 효과를 낸다.

특히 LG 시그니처 올레드 R은 4.2채널에 100와트(W) 출력을 내며, 제로뷰 상태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LG전자는 제품 생산부터 마케팅, 고객 관리까지 기존에 없던 차별화된 방식을 도입했다.

LG전자는 경북 구미 TV 생산라인에서 LG 시그니처 올레드 R를 생산한다. 생산부터 품질 검사까지 명장(名匠)이 수작업을 통해 진행한다. 명품 시계, 럭셔리 카 등 초고가 명품을 생산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또 알루미늄 본체 상판과 측면에 고객이 원하는 문구를 새겨 ‘세상에 하나 뿐인 TV’를 만들어주는 각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스피커를 덮고 있는 덴마크의 명품 패브릭 브랜드 ‘크바드라트(Kvadrat)’의 원단은 △시그니처블랙(Signature Black) △문그레이(Moon Gray) △토파즈블루(Topaz Blue) △토피브라운(Toffee Brown) 등 4가지 컬러 가운데 고객이 직접 원하는 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소장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R 구매 고객은 3년간 무상 서비스는 물론, 연 2회 특별 점검 서비스도 받는다. LG전자는 제품 설치 서비스 명장과 LG전자 연구원이 함께 고객 집에 방문하는 동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송영록 기자 syr@



부분변경 모델로 돌아온 제네시스의 중형 스포츠 세단 ‘더 뉴 G70’은 디자인 개선은 물론 카레이서처럼 역동적인 주행이 가능한 ‘스포츠+’ 모드를 새롭게 추가했다. 사진제공 제네시스

‘얼굴’ 바꾼 제네시스 G70, 스포츠카 모드 탑재

2.0터보 4035만원부터
운전석 ‘센터 에어백’ 적용

제네시스가 부분변경 모델로 돌아온 중형 스포츠 세단 ‘더 뉴 G70’의 주요 사양과 가격을 20일 공개했다.

전면부는 낮게 위치한 ‘크레스트 그릴’과 그릴 양옆으로 날개처럼 뻗어나가는 두 줄 디자인의 ‘쿼드램프’가 제네시스 엠블럼(emblem)을 형상화했다.

측면부는 기존 G70의 비율을 계승하고 공력 효율에 최적화된 사이드 벤트(공기 배출구)와 신규 G70 전용 휠을 적용해 민첩한 주행성능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후면부는 쿼드램프로 제네시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표현했고, 듀얼 머플러(좌·우 배기구)와 차체와 같은 색상의 디퓨저(Diffuser)로 고성능 세단의 모습을 완성했다.

실내에는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충전속도가 높아진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이 새롭게 적용됐다. 기본형 계기반의 화면(클러스터 디스플레이) 크기도 3.5인치에서 8인치로 키워 각종 주행정보의 시인성을 높였다. 앞유리와 1열 창문에 이중접합 소리차단 유리를 기본 적용해 실내 정숙성도 개선했다.

모든 모델에는 별도의 변속 조작 없이도 카레이서처럼 역동적인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차 스스로 엔진과 변속기 제어를 최적화해주는 주행 모드 ‘스포츠+(스포츠 플러스)’가 새롭게 적용됐다.

측면 충돌 시 탑승자 간의 충돌을 막아주는 ‘앞 좌석 센터 사이드 에어백’ 등 ‘10 에어백 시스템’을 적용했고, △자전거 탑승자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마주오는 차까지 인식하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다중 충돌방지 자동제동 시스템 등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위험 상황에서 탑승객을 보호한다.

더 뉴 G70의 판매가격은 △2.0 터보 4035만 원 △2.2 디젤 4359만 원 △3.3 터보 4585만 원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삼성, 코카콜라 제치고 글로벌 톱5 브랜드

인터브랜드 선정...韓 기업 최초
1위 애플...현대차, 36위에 올라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 최초로 글로벌 베스트 브랜드 톱5에 진입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각각 50위권, 10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그룹인 인터브랜드는 20일 “2020년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순위를 발표했다.

세계를 대표하는 100대 브랜드 가치 총액은 2조3364억 달러로 2019년 가치 총액 2조1309억 달러 대비 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10개 브랜드는 1위 애플(Apple)부터 아마존(Amazon),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구글(Google), 삼성(Samsung), 코카콜라(Coca-Cola), 토요타(Toyota),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 맥도날드(McDonald's), 디즈니(Disney) 순이었다. 애플은 전년 대비 38% 성장하며 8년 연속 세계 100대 브랜드 전체 순위 1위 자리를 지켰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브랜드 가

2020년 글로벌 100대 브랜드

(단위 : 억달러) ■ 2019년 순위 ■ 2020년 순위

순위	기업명	브랜드 가치
1	1위 애플	3,230
3	2위 아마존	2,006.7
4	3위 마이크로소프트(MS)	1,660
2	4위 구글	1,654.4
6	5위 삼성	622.9
...	...	...
36	36위 현대차	143
78	86위 기아차	58.3

※출처 : 인터브랜드

치를 1660억 달러로 끌어올리며 구글을 제치고 3위를 차지했다.

톱 10 브랜드의 브랜드 가치 총합은 100대 브랜드 가치 총합의 50%에 달한다.

국내 기업 가운데에서는 삼성전자가 622억 달러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며 한국 기업 최초로 톱 5에 진입했다.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 성장률은 2%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차가 종합 브랜드 순위 36위, 자동차 부문 5위를 달성했다. 현대차는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2005년 이후, 브랜드 순위는 48계단, 브랜드 가치는 108억 달러가 오르는 등 괄목 성장을 기록해왔다.

송영록 기자 syr@

한화큐셀·서부발전, 스페인 태양광 공동개발 협약

한화큐셀은 한국서부발전과 1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스페인 태양광 발전 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김희철 한화큐셀 사장 등 관계자 약 20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한화큐셀이 지난해 9월 스페인 현지 태양광 사업개발사에서 인수해

개발 중인 태양광사업 총 200MW(메가와트) 중 150MW 규모를 공동 개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부발전은 사업 지분에 참여해 발전소 자산을 유지·관리한다. 금융기관들로부터 직·간접적인 금융 조달도 진행한다. 한화큐셀은 태양광 발전 소 설계·건설을 담당한다. 서부발전과 한화큐셀은 각사의 전문 역량을 최대한 활용

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은 “양사가 보유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서로 보완한다면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철 한화큐셀 사장은 “주요국에서 검증된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부발전의 훌륭한 태양광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대우조선 ‘800도 철판 가공’ AI로봇 개발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업 최초로 인공지능형 열간가공 로봇 ‘곡누리(사진)’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선박은 운항 성능을 높이기 위해 선체의 앞뒤가 복잡한 곡면으로 이뤄져 있다. 최대 두께 70mm에 이르는 단단한 철판을 곡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냉간가공과 열간가공 공정을 거치게 된다. 냉간가공은 상온에서 압축 롤러 등을 사용해 철판을 곡면으로 만들게 되고, 열간가공에서는 약 800도가 넘는 고온으로 철판을 가열한 뒤



급속히 냉각시키는 곡면 성형 공법이 사용된다. 철판을 균일하게 가열하기 어려운 만큼 열간가공 작업에서는 숙련된 고기량

자의 경험에 주로 의존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된 로봇 곡누리는 기존 작업자들의 노하우와 실적을 데이터로 저장, 활용하면서 작업 내용을 표준화해 높은 품질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한다.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다른 선박의 건조작업에도 활용할 수 있어 사용하면 할수록 똑똑해진다. 그뿐만 아니라 소음과 근골격계 질환 등에 노출됐던 작업자들의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로봇 조작은 비숙련자도 2~3일의 간단한 교육을 통해 작업에 활용이 가능하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눌어붙은 밥풀까지 말끔하게…한국형 식기세척기”

비스포크 기획·개발자 인터뷰

4단 입체물살·75도 고온 살균
오목한 그릇 많은 한식에 최적
내부선반도 빨리 건조되는 재질

식기세척기는 건조기, 로봇청소기와 함께 ‘3대 이모님’으로 불리며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소비자들은 식기세척기의 세척력을 의심하며 식기세척기 구매를 망설여 왔다.

삼성전자 식기세척기 담당자들은 그 이유를 유럽 식문화에 맞춰진 기존의 식기세척기에서 찾았다. 유럽과 한국의 식문화는 식재료, 조리방법, 조리도구, 사용하는 그릇의 종류 등등을 면밀하게 검토했고, ‘한국 식문화에 최적화’된 식기세척기로 기획 방향을 잡았다.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상품전략팀 김문수 프로는 “한국은 유럽과 비교하면 식기도 다양하고, 눌어붙은 밥풀, 고춧가루 양념 등 오염의 형태도 달랐다. 다양한 형태의 식기들을 손상 없이 잘 배치해, 깨끗하게 세척하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국자, 뒤집개 등 길이가 긴 조리 도구들이 공간을 크게 차지하는 것을 보고, 조리 도구를 따로 모아두기에 알맞은 형태의 선반을 개발해 최상단에 배치했다. 덕분에 중단과 하단을 더욱 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하단은 ‘물결형 플렉스 바스켓’으로 고안해 다양한 두께의 식기를 쫓을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식기세척기개발Lab 류중찬 프로는 “플렉스 바스켓은 접시꽃이 간격을 4가지로 적용해, 다양한 크기의 접시를 수납할 수 있도록 했다. 타인(바스켓 내부의 격벽)을 세우거나 접을 수 있어 그릇의 크기에 맞게 공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 프로는 “오목한 식기 바닥의 물이 잘 빠지면서 세척도 깨끗하게 되도록 바스켓 타인에 물결 형태를 적용했다. 테스트 결과, 물 고임 현상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비스포크 식기세척기의 또 다른 특징은 직수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세척과 헹굼에 사용되는 물로 깨끗한 직수를 공급해 위생 걱정을 덜었다.

김 프로는 “직수로 깨끗한 물을 세척수



1 류중찬(왼쪽)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식기세척기개발Lab 프로와 김문수 상품전략팀 프로가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 물 맺힘 없이 깔끔하게 건조되는 메탈 소재의 상단 선반. 3 한식에서 자주 사용되는 오목한 그릇 수납에 용이한 ‘3단 한국형 선반 시스템’. 4 세척이 종료된 후 자동으로 문을 열어놓는 ‘자동 열림 건조’. 5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잔여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면부 타임 디스플레이’.

로 공급하는 것이 위생을 우선시하는 식기세척기로서 당연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 소비자가 가진 수질과 위생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온도를 75도까지 끌어올린 고온수를 활용해 살균하는

‘살균세척’ 옵션을 탑재했다.

김 프로는 “보통 65도 이상의 세척수를 사용하면 살균할 수 있지만, 비스포크 식

기세척기에서는 물의 온도를 75도까지 올렸다”며 “손으로 설거지할 때는 사용하기 어려운 고온수로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다양한 세균과 바이러스들을 없애는 동시에, 플라스틱 등의 식기를 손상하지 않고 빠르게 건조가 가능한 최적 온도가 75도였다”고 설명했다.

기존 식기세척기의 미약한 건조 기능은 다수의 한국 사용자들이 꼽은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다. 개발자들은 더딘 건조의 원인을 식기세척기 내부 소재에서 찾았다. 선반을 감싸는 데 흔히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단단해 보이는 느낌을 주지만, 소재의 특성상 빠른 건조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 단가는 높지만, 열전도가 높고 잘 마르는 메탈 소재로 교체하자 건조 성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류 프로는 “메탈 소재를 활용해 물 맺힘 없이 깔끔하게 건조되는 상단 선반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삼성전자 식기세척기의 차별화된 요소”라고 강조했다.

세척이 끝난 뒤 자동으로 문을 열리는 ‘자동 열림 건조’도 위생적인 건조를 돕는 대표적인 기능. 내부 습기 배출을 쉽게 해 식기들이 잘 마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제품 안쪽에 곰팡이와 같은 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준다.

류 프로는 “세척이 종료된 후 자동으로 문을 열어놓는 ‘자동 열림 건조’는 삼성전자가 2013년부터 국내 12인용 식기세척기에 최초로 도입한 이래 사용자들의 많은 호평을 받아온 기능”이라고 말했다.

비스포크 식기세척기가 ‘한국형 식기세척기’에 초점을 맞춘 만큼, 한국 사용자들에게 ‘주방의 자랑’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크다.

김 프로는 “설거지는 꼭 필요하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활동이다. 식기세척기가 설거지를 대신해주는 30분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가족과 함께 더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민고 말길 수 있는’ 식기세척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류 프로는 “15년 넘게 해외에서 식기세척기 제품을 개발하며 쌓아 온 삼성의 기술력을 모두 담았다. 더욱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한국인의 식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와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SAMSUNG

7가지 색상 패널에 1μm 미세플라스틱도 차단…디자인·기술 혁신

전용 정수필터 2만5000원 스마트폰 앱으로 원격 작동

삼성전자 비스포크 식기세척기는 차별화된 세척 성능에 디자인 혁신을 더한 제품이다.

12인용 제품(3~5인 가구에 적합)으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주방 인테리어를 완성해줄 7가지 색상의 비스포크 패널을 적용했다.

이 제품은 비스포크 냉장고처럼 이사를 하거나 주방 리모델링 시 패널만 따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해 주방 분위기에 맞춰 인테리어를 하는 데 유용하다.

특히 삼성 비스포크 식기세척기는 한국인의 식생활에 최적화됐다. 국내 최초의 4단 세척 날개로 ‘입체 물살’을 구현해 사각지대 없이 강력한 세척을 해 주고



눌어붙은 밥풀이나 양념도 깔끔하게 씻어내는 ‘스팀 불림’ 등 한국형 맞춤 옵션을 갖췄다.

또 한식에서 자주 사용되는 오목한 그릇 수납에 용이한 ‘3단 한국형 선반 시스템’ 등을 적용해 한국인의 식생활에 최적화해 개발됐다.

위생에 민감한 한국 소비자들을 위해 세척할 때마다 신선한 물을 공급하는 직수 방식은 물론, 75도의 고온수를 사용하는 ‘살균세척’ 옵션을 탑재했다.

스마트싱스(SmartThings) 앱을 통

한 사물인터넷(IoT) 기능도 추가됐다. 원격으로 코스와 옵션을 선택해 작동시키고 세척 진행 상황이나 기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 젖병 소독이나 냄비·프라이팬 세척 등의 추가 코스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종류와 재질의 식기를 고려해 최적의 맞춤 코스를 추천하는 ‘세척 레시피’와 효율적으로 식기를 수납할 수 있는 팁을 알려 주는 ‘로딩 가이드’ 등의 기능을 통해 식기세척기를 더욱 똑똑하

게 사용할 수 있다.

삼성 비스포크 식기세척기는 싱크대나 가구장에 설치하는 ‘빌트인’과 공간 제약 없이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프리스탠딩’ 타입 겸용으로 두 가지로 나왔다. 출고가는 144만~149만 원.

삼성전자는 식기세척기 전용 정수필터도 최근 출시했다.

이 필터는 더 깨끗한 물로 식기를 세척하고자 하는 소비자 요구에 따라 코웨이와 협업해 개발한 제품이다. 이 정수필터는 복합 세디먼트(Sediment) 필터가

2단계로 구성돼 있다. 수돗물에 섞여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미세 플라스틱, 수도관의 녹과 같은 부유물질을 1μm(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한 입자까지 걸러낼 수 있다.

또 필터의 정수 용량은 6개월에 한 번만 교체하면 될 정도로 넉넉하고, 소비자가 직접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삼성 식기세척기 전용 정수필터의 설치 키트 가격은 10만 원이며, 삼성전자 전문 설치팀이 방문해 설치해준다. 최초 1회 설치 이후에는 셀프 교체가 가능하며 필터는 2만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정유진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상무는 “앞으로도 소비자들께서 삼성 식기세척기를 더욱 안심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SKT, 점프스튜디오 앞세워 ‘5G 콘텐츠 왕국’ 도전장

SK텔레콤(SKTEL)이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실감 미디어 기술을 집약한 혼합현실(MR) 제작소 ‘점프스튜디오’를 동력 삼아 5G 콘텐츠 왕국 5G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SKT는 20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기존 서울 중구 SK 남산빌딩에 있던 점프스튜디오를 분사 T타워로 확장 이전한다고 밝혔다. 점프스튜디오는 올해 4월 SKT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협력해 아시아에선 처음 구축한 혼합현실 전문 콘텐츠 제작소다. 혼합현실은 AR·VR을 결합한 콘텐츠로 가상 환경에서 실제 인물을 3D 홀로그램으로 구현한다.

SKT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의 온라인 전용 유료 콘서트 ‘비온드 라이브’에서 3D홀로그램 기술을 선보였다. 콘서트장에는 12m 높이의 최시원 씨가 가상으로 출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점프스튜디오에서 촬영한 K팝 안무가 리아킴의 ‘블류메트릭 휴먼’ 공연도 공개됐다. 가상공간에서 리아킴이 등장하는 3D 홀로그램 공연으로 이 영상은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1MILLION Dance Studio)’ 공식 유

튜브 첫 혼합현실 콘텐츠 제작소 T타워로 확장 이전, 사업 확대 K팝 등 초실감 콘텐츠 제작 홍콩 시작으로 글로벌 진출 속도 내년 누적 이용자 1000만 목표

튜브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

SKT는 점프스튜디오를 기반으로 5G 콘텐츠 사업을 두 트랙으로 확장한다. 첫 번째 축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교육 분야 기업 대상 초실감 콘텐츠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작하는 사업이며, 두 번째 축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프 AR·VR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점프스튜디오 내부에는 제작에 참여하는 전문 팀으로 스토리 작가나 PD가 있다. 전진수 SKT 5GX서비스사업본부장 “내부 인력이 전체를 다 제작할 수 없어,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해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유영상 SKT MNO 사업대표는 “엔터테인먼트의 공연이나 교육, 스포츠 분야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가 온라인 간담회에서 3D 홀로그램으로 나타나 5G 콘텐츠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등 여러 영역의 사업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하면서, 점프 스튜디오에 끊임없이 문의가 오고 있다”고 밝혔다.

점프 AR·VR 서비스의 첫 글로벌 진출지는 홍콩이다. 이달 15일 SKT는 홍콩 1

위 통신기업 PCCW 그룹(산하 홍콩텔레콤, PCCW 미디어)과 협력을 맺었다. 판다 등을 AR·VR 콘텐츠로 만들거나, 점프스튜디오를 활용해 K팝 블루메트릭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영상 대표는 “홍콩, 마카오는 올해 5G를 시작하면서 막 성장하는 나라”라며 “각국 주요 1위 사업자들과 로밍 협력을 맺고 있는데 그 파트너들과 점프 서비스를 공동으로 콘텐츠 투자 등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 DT, 미국 T모바일 등과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SKT는 홍콩을 시작으로 향후 유럽, 북미 등 서비스 출시국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현재 점프 AR·VR 이용자는 1년간 누적 300만 명을 기록했고, 월간 활성이용자(MAU)는 60만 명가량이다. 유 대표는 “내년 누적 이용자 1000만 명 달성이 목표”라며 “매출이나 유료화는 1000만 달성 이후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SKT는 이 자리에서 소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버추얼 미팅(Virtual Meetup)’도 공개했다. 버추얼 미팅은 나만의 아바

타를 만들어 가상 공간에 최대 100명까지 동시 접속해 콘퍼런스,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모임을 하는 소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점프 VR 앱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별도 VR 기기 없이 스마트폰, PC만으로도 가능하다. 버추얼 미팅은 5G 기기뿐 아니라 LTE 기기를 쓰는 고객들도 사용할 수 있다.

전진수 본부장은 “당장 유료화 계획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유료화할 수도 있다”며 “행사를 주관하는 주최 측 등과 기업 간 거래(B2B) 모델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추얼 미팅에서 이용자는 개인 취향에 따라 얼굴, 머리 모양, 복장 등을 선택해 나만의 아바타를 만든다. 전 본부장은 “점하나까지 아바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점프스튜디오가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콘텐츠 메카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실감 미디어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과기부 산하 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

2016~19년 국외교육 보고서 14건 중 8건 ‘표절’ ‘연구비 부정집행’ 적발 82건… 환수 결정액 48억 출연연 직원 56% “내부갑질 경험”… 12%는 “매일”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표절과 연구비 부정 사용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6~2019년 한국연구재단의 국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총 14명의 보고서 중 8건이 표절이었다. 조 의원은 “많게는 기존 논문과 77%가 일치하는 예도 있었다”며 “연수가 아니라 사실상 1년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외교육훈련사업’은 재단 임직원 중 매년 두세 명을 선발, 인당 약 5000만 원의 국비를 투입해 1년간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사업이다. 임직원들은 연수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구비 부정 집행도 지속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면, 최근 5년간 연구비 부정집행 적발 건수는 82건, 연구비 환수 결정액은 48억500만 원에 이른다. 연구비 부정 집행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7건, 2017년 15건, 2018년 15건, 2019년 22건, 2020년 13건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학생인건비 유용 포함)이 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갑질 문화도 여전했다. 출연연 직원 10명 중 1명이 매일 갑질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에 따르면 출연연 직원 과반수(56.1%)는 내부 갑질을 자주 경험했다. 내부 갑질은 38.9%의 직원이 주 1회 이상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매일같이 내부 갑질을 경험한다는 답변도 11.5%에 달했다.

안전사고가 최근 3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 연구기관의 안전사고는 2017년 3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안전사고 합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상기술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각 5건, 한국과학기술원 4건, 안전성평가연구소 3건 순이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의 경우엔 연구단장들이 수년간 특허를 빼돌리고, 연구비를 횡령·유용하고 해외 도주까지도 불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초과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과학연구원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총 16건에 대해 징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연구단장 3명은 검찰에 고발돼 파직이나 해임 등으로 연구단을 퇴직했으며 2명은 3개월간 보직해임되었다가 현재는 복귀한 상태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연간 6000억 원대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나라 유일한 기초과학 연구기관으로, 총 31개 연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박소은 기자 gogumee@

매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협찬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 등 협찬 관련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효능이나 효과 등을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찬 고지를 하도록 하는 ‘필수적 협찬 고지’ 규정을 신설하고, 개별법상 방송광고 금지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 등에 대한 협찬을 받는 경우에는 협찬 고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협찬 고지의 시간·횟수·방법 등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고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협찬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는 협찬 관련 자료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정당·정치단체, 방송 협찬 못한다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협찬 거래 투명성 제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찬 및 협찬 고지의 허용범위 등을 정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 방송법은 협찬 고지의 근거와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협찬’ 자체를 규정하지 않아 협찬과 관련한 부당행위나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협찬의 통제가 어려웠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해 협찬이 건전한 방송 제작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협찬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협찬을 방지하기 위해 ‘협찬’의 정의 조항을 신설했다. 여기서 협찬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의 행사·캠페인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협찬과 시사·보도·논평·시사토론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협찬을 금지했다.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의 구



LG U+, 가정용 공유기 ‘기가와이파이6’ 출시 LG유플러스가 가정용 와이파이 공유기 ‘기가와이파이6’를 이달 30일 출시한다. 20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기가와이파이6’는 2019년 미국 전기전자학회(IEEE)가 정한 최신 무선 네트워크 표준 규격을 적용한 와이파이 공유기다. 국내 통신사 최초로 퀄컴의 WiFi6 2x2 전용 쿼드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LG유플러스는 “여러 기기가 동시에 접속된 환경에서도 최적의 무선 인터넷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19번째 자성한 기업에 예비 유니콘 ‘프레시지’

백년가게 상품화·판로 지원

예비유니콘 기업 ‘프레시지’가 중소·벤처기업으로서 최초로 19번째 자성한 기업에 선정됐다. 프레시지는 ‘백년가게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힘을 예정

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일 프레시지, 전국백년가게협의회와 ‘백년가게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프레시지는 백년가게에 대한 밀키트 상품화를 지원하고, 상품화된 백년가게 밀키트의 판로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배달메뉴 상품화 및 배달업 운영 컨설팅에도 나선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5월부터 중기부가 ‘상생과 공존의 가치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성한 기업’ 시리즈 중 19번째다. 전통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후의 디지털 전환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프레시지의 의지에 따라 성사됐다.

프레시지는 가정간편식 전문 창업기업이다. 신선한 식재료를 즉석으로 요리할

수 있는 밀키트 개발과 대량 양산체제로 온라인 시장에 진출한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누적 투자액도 총 1350억 원에 달한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을 자발적 상생문화가 중소·벤처기업까지 확산되고 시장의 혁신성장이 소상공인과의 상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벤처기업 최초로 자성한 기업에 참여해준 프레시지에 감사하며 이런 혁신벤처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 활동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종고 프레시지 대표는 “자성한 기업 협약을 통해 프레시지가 쌓아온 역량을 소상공인들과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뜻 깊게 생각한다”며 “백년가게의 전통이 담긴 맛을 전국의 모든 소비자들에게 식탁 위에서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개발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금융의 모든 순간 ✨

12:00PM 100%

Allone pay

NH농협생명

NH Bank one up

NH농협카드

NH농협손해보험

스마트를 위한
디지털 금융

한 사람 한 사람 다양한 삶에 맞춘 디지털 금융으로
금융의 모든 순간을 편하게, 스마트하게!
NH농협금융이 함께 합니다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

“성과 따라 보상” 롯데쇼핑, 대대적 연봉제 개편

‘직급별 초임제’→‘누적식 개별연봉제도’ 내년 2월부터 적용
승진해도 성과로 급여 책정... 복지축소 이어 체질 개선 박차

롯데쇼핑이 직원 연봉 제도 개편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환경 악화 속에서 롯데쇼핑이 ‘성과주의’에 입각한 체질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연봉제도 개편 관련 직원 동의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변경안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통과됐다.

현행 ‘직급별 초임제’에서 ‘누적식 개별연봉제도’로의 변화가 연봉제 개편의 핵심이다. 기존 직급별 초임제도에서는 승진시 직급별 동일 기본급이 지급됐는데, 이번 변경안 통과에 따라 승진시 기본급과 업적 가급은 개인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업적이 급은 전년도 근무 성과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또한 기존에 비(非)누적식으로 지급됐던 업적가급은 누적식으로 지급된다. 한마디로 롯데쇼핑 내에서 성과 있는 곳에 보상해주는 ‘연봉의 성과주의’가 공식화한 셈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변경된 연봉제는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며 “경쟁 유통사의 경우 누적식 연봉제가 이미 실시된 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임금 구성 항목과 연봉등급별 인원 비율도 조정된다. 우선 명절상여 규모는 상여기초 150%에서 100%로 줄인다. 대신 업적가급 규모를 △간부 450%→500% △사원 650%→700%로 늘린다. 다

만 상여기초 기준은 모든 사원에 대해 ‘기본급+직책수당’으로 바뀐다. 기본급에 차등을 두는 만큼 상여에서도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는 기초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봉등급별 인원 비율의 경우 상위 고과자 비율을 줄이고 평균 비중을 늘렸다. 롯데쇼핑은 그간 고과 평가를 5단계로 실시해 왔다. 변경안 통과에 따라 인원 비율은 △최고단계인 EX를 10%에서 5%로 낮추고 △평균단계인 AV를 60%에서 70%로 늘리고 △최저단계인 UN 비율은 미정으로 조정된다. 평균 고과자(AV) 이상 비율이 기존 25%에서 20%로 감소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회사 내부에서는 “저성과자 급여를 줄여 고성과자에게 몰아주겠다는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직책 수당 기준은 세분화된다. 점장과

부문장(차부장급 기준)이 일괄적으로 수렴했던 200만 원의 직책 수당은 차부장급 200만 원/과장급 16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또한 차부장급 직책자가 수령했던 100만 원의 수당 역시 팀장 직책자에 대해 차부장급 100만 원/과장급 80만 원으로 구분 지급된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롯데쇼핑이 최근 복지 축소를 골자로 한 복지 제도 개편을 실시한 데 이어 연봉제도까지 개편, 대대적인 체질 개선 작업에 나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들어 롯데그룹 내부에서는 변화의 기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롯데그룹은 ‘2인자’였던 황각규 부회장이 정기 인사철이 아닌 지난 8월 전격 퇴진하면서 인적쇄신과 동시에 사업재편에 나서고 있다. 특히 롯데쇼핑은 이달 14일

보스턴컨설팅 출신으로 제약회사 ‘동아ST’ 경영기획실장을 지낸 70년대생 정경운(48)씨를 기획전략본부장에 임명했다. 백화점·마트·슈퍼 등 전 사업부 전략을 수립하는 이 자리에 롯데그룹이 ‘공채’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를 영입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이는 롯데의 실적 부진과도 연관이 있다. 올 2분기 롯데의 양대 축인 유통과 화학 부문 영업이익이 각각 98.5%와 90.5% 추락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일각에서는 연말 파격 인사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황각규 전 롯데지주 부회장의 후임으로 이동우 대표를 선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송용덕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등 3인체제를 갖춘 롯데그룹은 올해도 예년보다 정기 임원인사를 한달여 이상 앞당길 것으로 관측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메디톡신’ 허가 취소 위기 사면초가 몰린 메디톡스

식약처, 약사법 위반 적용
대응제약과 ‘균주 싸움’도
내달 美 ITC 최종 판결 앞뒤



보툴리눔 독신 균주의 출처를 둘러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의 최종 판결을 앞둔 메디톡스가 새로운 위기를 맞았다. 주력 보툴리눔 독신 제제 ‘메디톡신(사진)’ 전 품목이 허가 취소될 처지에 놓인 메디톡스가 상황을 반전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추가적인 품목허가 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 식약처는 전날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거치지 않고 메디톡신을 판매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회수·폐기 명령과 함께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약사법 적용은 부당”=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메디톡신’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 일부 제조 단위이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제53조 1항을 적용했다.

메디톡스는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에 약사법을 적용한 식약처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맞섰다. 과거 대법원은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며 명백하며,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 약사법을 적용한 이번 조치는 위법 부당하다”면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과는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예외 조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품목이 약사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확대된 논리”라며 이번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문제 없다”는 식약처=이번 행정처분이 국내의 다른 보툴리눔 독신 제제 업체들에게 적용될 지도 관심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국

내에서 보툴리눔 독신 제제를 제조·판매하는 기업들은 해외 수출용 의약품에 대한 국가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서 “일부 품목은 국내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 허가부터 받아 해외로 나가는데, 그런 업체들에게는 어떻게 약사법을 적용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다른 보툴리눔 독신의 업체의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면서 “필요성이 확인되면 추가 점검에 나설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약처는 행정처분의 바탕이 된 최초 조사에 돌입하게 된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6월 착수한 행정처분은 공익신고 제보가 발단이 된 바 있다.

◇美 ITC 최종판결 초읽기=메디톡스는 다음달 6일(현지시간) 미국 ITC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ITC는 7월 예비 판결에서 “대응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예비 판결이 뒤집히는 일이 드물다는 점에서 수 년을 이어온 양사의 진실게임은 메디톡스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ITC 최종 판결은 미국 현지의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세로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지만, 메디톡스는 연내 대응제약과의 지리한 싸움에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법원은 앞서 내려진 식약처의 제조·판매 중지명령 및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메디톡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메디톡스는 해당 처분과 관련해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공방까지 더해지면 사면초가에 처한 메디톡스로서는 ITC 최종 판결이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혜은 기자 euna@

유통가 “반가운 단풍철” 등산·캠핑족 공략 올인

캠핑용품·아웃도어 등 행사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등산·캠핑족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웃도어족의 성수기 가을 단풍철이 돌아왔다. 4050세대의 취미 생활로만 여겨졌던 산행 문화가 코로나19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던 2030세대 젊은 층으로 연령대가 넓어지면서 유통가도 캠핑용품을 비롯한 아웃도어 의류, 산행용 도시락 판매 등으로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20일 마켓컬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강타한 3월부터 9월까지 바비큐, 꼬치 등 캠핑용 식품은 작년 동기 대비 150%, 휴대용 식기 등 캠핑용품은 134%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고기에 곁들여 맛을 더하는 바비큐용 소스가 216% 증가했고, 꼬치류 판매도 188% 치솟았다. 일회용 그릴 상품은 268%, 테이블 매트 등 캠핑용 식기류 판매량은 95% 많이 팔렸다.

단풍을 즐기는 가을에 들어서면서 캠핑용품과 아웃도어 제품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이마트에서 이달 들어 18일까지 캠핑용품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이마트가 28일까지 텐트, 그늘막, 침낭, 캠핑체어, 배낭, 등산복 등 캠핑·등산 용품을 행사카드 구매시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표 상품으로 ‘빅텐 패밀리그늘막’을 기존 4만9900원에 행사카드로 구매 시 3만4930원에 판매한다. ‘에센셜침낭’은 30% 할인된 6930원에, ‘빅텐 피크닉 체어’는 9030원에 제공한다.

사진제공 이마트

117.4% 신장하며, 2배 이상 많이 팔렸다. 캠핑족이 늘면서 유통업체들은 등산 캠핑용품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블랙야크와 함께 백화점 최초로 블랙야크 알파인 클럽(Blackyak Alpine Club·블랙야크 운영 앱 기반 산행 커뮤니티, 이하 BAC) 100대 명산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는 28일까지 텐트와 그늘막, 침낭, 캠핑체어, 배낭 등 캠핑 용품을 행사카

드 구매시 최대 30% 싸게 파는 행사를 진행한다.

편의점 GS25는 국립공원공단과 손잡고 ‘국립공원도시락’ 시리즈를 선보인다. 도시락의 주 메뉴에 지역특산물 식재료를 활용하고, 지역농산물 원산지를 표기해 상품별로 고유의 스토리를 입힌 상품이다. 방문 2~3일전에 도시락을 예약 주문하면 탐방로 입구 정해진 장소에서 도시락 배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남주현 기자 jooh@

탈모샴푸 ‘닥터그루트’ 3년 만에 1000만 개 판매

LG생활건강의 탈모케어 브랜드 ‘닥터그루트’가 출시 3년 만에 1000만 개 이상의 누적판매량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닥터그루트는 브랜드 출시 첫해인 2017년 이후 올 10월까지 누적 판매 수량이 1000만 개를 돌파했다. 1분에 약 5.5개가 팔린 셈이다. 님스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전체 샴푸 시장에서 탈모케어 샴푸는 약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닥터그루트는 약 6%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다.

닥터그루트는 개인의 모발과 두피의 타입에 따라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탈모 전문 브랜드다. 전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으로 보고 완료됐다. 특히 닥터그루트 ‘에딕트’ 라인은

새콤한 한 잔... 하이트진로 ‘아이셔에이슬’ 출시

오리온 ‘아이셔’와 컬래버

하이트진로가 오리온 ‘아이셔’와 컬래버한 과일 리큐르 ‘아이셔에이슬’을 출시했다.

하이트진로는 자몽에이슬, 청포도에이슬, 자두에이슬에 이어 네 번째 과일 리큐르로 아이셔에이슬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시큼하기로 유명한 오리온 캔디스 내 ‘아이셔’와 협업한 이 제품은 재미있는 소비를 추구하는 2030 팬슈머를 공략하기 위해 제작했다. 아이셔에이슬은 알코올 도수 12%로 자몽에이슬 등 기존 과일리큐르보다 1도 낮다. 26일부터 전국에 출시된다.

하이트진로 측은 2015년 자몽에이슬을 시작으로 청포도에이슬, 자

120년 전통의 명품 향료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천연 아로마블렌딩을 적용해 독특한 향기를 구현했다.

닥터그루트는 지난해 11월 직영몰을 오픈하고 브랜드의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며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유연한 채널 전략으로 온라인몰 정착에 성공했다.

닥터그루트 마케팅 관계자는 “닥터그루트가 세계 시장을 이끄는 1등 탈모케어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혁신을 거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두에이슬을 내놓고 국내외 과일 리큐르 시장을 선도해왔다. 캄보디아, 태국, 미국, 중국 등 주요 해외시장에서도 현지인들의 인기를 얻으며 4년간 연평균 105% 매출이 증가했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상무는 “아이셔에이슬은 최신 팬슈머트렌드를 반영한 소주류 최초 컬래버레이션 제품”이라면서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들을 꾸준히 선보이며 국내 주류시장 성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지 기자 heyji@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부실 털고 가자”… 재계 ‘빅배스’ 이어질까

정의선(사진) 현대차그룹 회장은 19일 ‘세타2 엔진’의 리콜(시정조치) 등과 관련해 3조3900억원의 총당금을 지난 3분기(7~9월) 실적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 회장의 이번 결정은 2015년부터 문제가 된 세타2 직분사(GDi) 엔진의 논란을 해소하고 적자를 털고 가겠다는 ‘빅배스(Big Bath)’ 전략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목욕을 철저히 해서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는 뜻의 빅배스는 경영진 교체 등을 계기로 부실 자산을 한꺼번에 정리해 회계 장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재계는 한화그룹, CJ, GS, LS 등 주요 그룹사들이 3, 4세에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빅배스’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승계 앞둔 재벌 그룹 빅배스 할까=올해 재계에선 오너 3·4세 중심의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젊은 경영으로 변화와 혁신을 도모해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의지의 행보다.

올해 한화그룹은 3세 경영을 본격화했다.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재계에선 김동관 사장이 한화그룹의 화학 계열사 전반을 이끄는 대

‘세타2 엔진’ 리콜 총당금 반영
현대차 3분기 실적 ‘적자’ 전망

“취임 초기에 대규모 적자낸 뒤
흑자행진… 모럴해저드 경계”
“선제적 위험관리” 긍정 평가도

한화·CJ·GS·LS 등 주요 그룹도
경영 승계 앞두고 빅배스 가능성

신, 동생인 김동원 상무는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등 금융 계열사를 맡을 것으로 관측했다. 한화그룹은 세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에이치솔루션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재편에 나서고 있다. 세 형제 보유의 지분 가치를 높여 이를 한화 지분 매입자금으로 활용하거나 혹은 에이치솔루션과 한화 합병 시 유리한 합병비율을 이끌어내 경영권 승계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진그룹 역시 지난해 4월부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경영을 지휘하면서 세대



교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증권가와 재계에선 한화, CJ, GS, LS 등 주요 그룹들도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적자 요인을 한 번에 털어내는 ‘빅배스’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그룹 내 오랫동안 적자를 지속하거나 부실한 계열사가 빅배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 올해 경영 승계를 진행한 한세에스24그룹인 경우, ‘빅배스’를 발판으로 오너 일가 밀어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작년 말, 김동년 한세에스24홀딩스 회장의 막내딸인 김지원 씨가 한세엠케이 대표 자리에 오르면서다. 같은 시기 한세엠케이가 지난해 대규모 적자(당기순손실 455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히자 시장에선 김지원 대표의 승진에 발맞춘 ‘빅배스’가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오너들이 단기 업적 주위에 매몰되다 보면 취임 초기 대규모 적자를 낸 뒤 얼마 동안 흑자 행진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다”면서 “회계장부 효과로 실적 개선을 증명하려는 모럴해저드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비용 발생에 따른 어닝 쇼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선제적 위험관리’ 측면에선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위험요소를 일시에 제거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빅배스, 주가에 미친 영향=일회성 비용이라도 해도 기업의 대규모 손실은 투자자에게 달가는 소식이 아니다. 단기적 실적 부진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현대차 역시 대규모 비용 발생으로 증권가에선 실적 및 주가 전망 추이를 하향 조정했다. 20일 현대차는 전 거래일 대비 500원(0.3%) 내린 16만7500원에 장을 마쳤다.

2016년 박용만 두산그룹 전 회장은 큰 조카인 박정원 회장에게 그룹 경영권을 넘기면서 빅배스를 단행한 바가 있다. 빅배스 당시 2015년 두산그룹이 당기순손실 1조7008억 원을 기록하자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2015년 2만6001원에서 2016년 1월 1만1098원까지 반토막 남게 내려갔다.

실제 빅배스를 단행한 대부분의 기업이 코스피 대비 큰 폭으로 밀렸다는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빅배스를 단행한 기업들의 연도별 평균 주가 상승률은 -12.6%p로 집계됐다. 또한, 빅배스 기업이 바로 이익 체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추가적인 구조조정, 부실 자산 상각 등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유진투자, 강북 종합자산관리 ‘서울WM센터’ 오픈

광화문·명동지점 통합

유진투자증권이강북지역종합자산관리 대형점인 ‘서울WM센터’를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WM센터는 서울 주요 업무지구에 위치한 대형 WM센터 특성을 활용해 기업 금융을 활용한 특화 PB 영업 및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팀 단위 영업조직을 활용해 기업금융자문, 블록딜, 비상장주식 등 기업금융 영역의 금융 상품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고객 자산관리와 연결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펼치겠다는 전략이다.



유진투자증권 주요 임직원들이 19일 중구 무교동에 위치한 서울WM센터에서 개소식 행사인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됐다. 사진제공 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은 개점식을 최소화하는 대신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광화

문, 명동지점의 기반이 된 지역구민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장애인 휠체어 보조가방을 구입해 종로구청에 기증했다.

한편, 올해 들어 유진투자증권은 고객접점 채널 혁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소형사 리테일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PB 중심의 영업과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에는 서울의 강남과 강동지역 5개 지점을 통합해 문화 특화 WM센터인 ‘챔피언스라운지’를 선보였으며, 그 두번째 순서로 이번 ‘서울WM센터’이 출범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국민연금, 네덜란드 연기금과 실물자산 공통투자 파트너십

국민연금이 네덜란드 연기금 APG와 파트너십을 맺고 최근 유럽 및 팬아시아 지역 공동투자를 성사시켰다고 20일 밝혔다. APG는 네덜란드 최대 연기금 운용 전문기관으로, 지난해 말 기준 자산운용 규모는 약 698조 원에 달한다.

두 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우량 투자처 발굴을 공동으로 진행, 지난 8월과 10월 호주의 대학교 기숙사 시설과 포르투갈의 최대 고속도로 운영회사에 50대50 비율의 공동투자를 성사시켰다.

국민연금은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상황이 장기화하는 여건을 감안해 2년에 걸쳐 해외투자 조직 개편 및 투자 프로세스 간소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등 해외투자 선진화를 위한 체질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실물자산 수요 증대로 우량 투자처에 대한 발굴 경쟁이 심화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여건 등을 감안해 실효성 있는 투자기회 확대를 위한 주요 기관과의 채널 확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빅히트 나홀썸 하락… 시총 12兆→6兆 ‘반토막’

外人·기관 물량 풀고, 개인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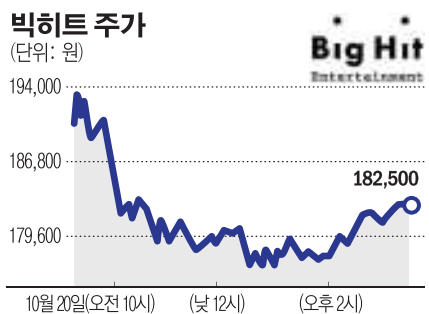
세계적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도 상장 나홀썸 하락세다. 기관과 외국인이 여전히 물량을 내놓고 있고, 대주주와 기관의 의무 보유 기간 해제 ‘시한폭탄’도 반등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일 빅히트는 전일 대비 6500원(3.44%) 하락한 18만2500원으로 마감했다. 한때 12조 원에 육박했던 시가총액은 6조1769원으로 감소했다.

빅히트 주가가 하락할수록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폭도 커지고 있다. 순매수 주문 대부분이 개인투자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빅히트의 개인 순매수 금액은 상장 첫날인 15일 2435억 원, 16일 1602억 원, 19일 111억 원 등이다. 이날 408억 원까지 총 4558억 원에 이른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상장 이후 계속 물량을 풀고 있다. 4거래일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합산 금액은 1501억 원이다.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



다. 아직 빅히트의 기관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빅히트는 15일 확약 물량 20만5463주와 1개월 확약 물량 132만2416주를 등 한 달 내 35%가 넘는 기관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 6개월 기준으로는 총 428만2309주가 해제를 기다리고 있다.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도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던 주식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주가 하락의 도화선이 됐다.

SK바이오팜은 5일 3개월 의무확약 조건으로 물량을 배정 받은 기관들이 대거 매도에 나선 탓에 10.22% 급락했다. 카카오게임즈도 12일 1개월 의무보유확약 물량인 435만9047주가 해제되며 7.36% 하락했다.

김우람 기자 hura@

‘키움글로벌얼터너티브펀드’ 청산 수준

공모형 해외펀드 첫 환매중단… 투자금 일괄지급 방침

지난달 공모형 해외펀드로는 사실상 상 처음 환매중단돼 시장의 우려를 샀던 키움투자자산운용의 ‘키움 글로벌 얼터너티브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의(이하 키움글로벌얼터너티브펀드)가 20일 결국 청산 수준을 밟게 됐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키움글로벌얼터너티브펀드 수익자 총회를 열고 이날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펀드 순자산의 93%는 펀드 청산 즉시 지급될 계획이다. 9월 말 기준 총 펀드 규모는 약 3336억 원 정도다. H2O 펀드에 담겨 당장 현금화가 불가능한 나머지 7% 자산은 내년 6월까지 현금화가 되는 대로 수익자 계좌로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키움글로벌얼터너티브펀드는 해외펀드들을 재간접 형태로 담아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로 주목받은 상품이 었지만, 투자자산이었던 해외 펀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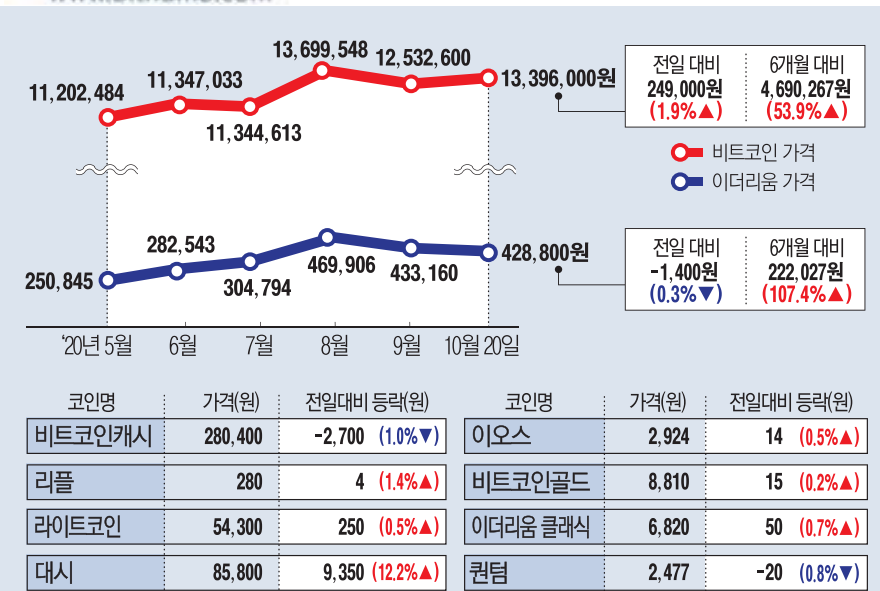
유동성 문제가 환매가 중단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의 우려를 샀다. 키움운용은 지난 7일 키움글로벌얼터너티브펀드의 환매를 중단했다. 프랑스 금융당국이 영국계 H2O자산운용의 ‘H20멀티본즈 펀드’와 ‘H20알레그로 펀드’의 일부 가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 신규 설정 및 환매 중단을 지시하자 이에 투자한 키움글로벌얼터너티브펀드도 연쇄적으로 환매가 중단,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도 묶이게 된 것이다.

환매중단 이후 키움운용 측은 운용보수를 기존 0.3%에서 0.01% 수준으로 낮추며 사태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키움운용 관계자는 “환매 연기로 인해 일정 기간 고객의 자금이 묶이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나머지 7%정도의 자산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해 순자산가치(NAV)수준에서 현금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0년 10월 20일 17:00, KST)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주택 재개발·준공업지역도 ‘역세권 고밀개발’ 추진

서울시 ‘조건부 종상향’ 조례 개정안
민간 주택공급 절반 공공임대 지어야
서울시·의회 개편 합의 못해 난항

역세권 고밀 개발사업 범위를 준공업 지역과 주택 재개발 지역까지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태 시의원은 16일 역세권 활성화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역세권 내 준공업 지역과 주택 정비구역에서도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올 5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역세권 활성화와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에서 주택 사업을 하면 조건부로 용도 지역 중(種) 상향을 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용도지역 종이 상향되면 용적률 상한도 올라가고 그만큼 주택 건설 사업성도 좋아진다. 역세권 범위도 승강장 반경 250m에서 350m로 늘렸다. 국토부 등은 대신 중 상향으로 늘어난 주택 공급량 절반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내놔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건 현행 제도에선 이 같은 규제 완화에도 주택 공급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현재는 2·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업 유형도 임대주택사업과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 가운데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과 달리 업무·상업용 건물 건설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공업지역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도 7월부터 역세권 활

성화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 자체 검토에선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주택 정비형 재개발을 포함하면 구역별로 주택 공급이 최대 20%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시의회 검토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확대되면 노원구 상계동과 동대문구 이문동, 동작구 노량진동, 송파구 마천동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역 주변에 재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지역이 많아서다. 영등포구와 구로구, 금천구 일대 준공업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개편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속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아직 조례에 관한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시의회 측에선 “서울시에서 소극적”이라고 전했다.

임대주택 공급 의무도 난관이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여도 임대주택이 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

가격제한에 ‘로또분양’ 강남 아파트 987대 1

〈전용 69㎡〉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서울 분양(예정) 단지 (단위 : 원)			
서초 자이르네(전용59㎡)		주변 시세(전용59㎡)	
3.3㎡당	3252만	분양가	서초 그랑자이 20억 (7월 입주권 매매 실거래가)
분양가	7억2914만~7억7514만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전용84㎡)		주변 시세(전용84㎡)	
3.3㎡당	2730만	분양가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14억~15억 (9월 매매가격 실거래가)
HUG분양가 3.3㎡당	2569만		
분양가	8억3100만~8억6600만		
※출처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서초자이르네’ 경쟁률 300대 1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도 분양
당첨 가점 높아져 ‘희망고문’ 커져

‘987대 1’.

1000대 1에 육박하는 이 청약경쟁률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분양한 ‘서초 자이르네’ 아파트(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단지) 전용면적 69㎡형에서 나왔다. 단 1가구 모집에 무려 987명이 몰려들었다. 서초 자이르네는 서울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첫 분양 단지로, 1만507명이 청약통장을 던져 평균 경쟁률이 300대 1에 달했다.

서울 청약시장에 ‘광풍(狂風)’이 휘몰아친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안 그래도 낮아진 분양가가 분양가 상한제의 본격 시행으로 더 낮아진 탓이다.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에 앞으로 나올 서울 새 아파트 분양시장에선 ‘발매 청약’이 속출할 전망이다.

서초 자이르네는 입주자를 모집한 모든 주택형이 세자리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쟁률 987대 1을 기록한 69㎡A형(이하 전용면적 기준) 이외에도 △69㎡B형이 483대 1 △59㎡B형 458대 1 △59㎡C형 324대 1 △59㎡A형 296대 1 △50㎡A형 148대 1 △50㎡C 170대 1 △50㎡B형 10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분양 물량(35가구)을 포함한 총 67가구(2개 동)짜리 소규모 단지가 청약 광풍을 일으킨 배경엔 분양가 상한제가 자리하고 있다. 상한제 적용으로 서초 자이르네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3252만 원으로 최고 분양가가 8억9414만 원에 불과했다. 전용 50~69㎡가 6억6800만~8억9400만원 선이다. 강남권 분양 단지인데도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지 않아 중도금대출이 가능했다.

실제 서초 자이르네 인근에 있는 ‘서초 그랑자이’(서초무지개 재건축 아파트) 전용 59㎡형 입주권은 지난 7월 20억 원에 거래됐다. 구축 단지인 인근 서초한신아파

트(2001년 입주) 전용 85㎡형은 지난 7월 14억5000만 원에 팔린 뒤 현재 호가가 16억 원에 육박한다. 서초 자이르네에 당첨되면 구축단지와 비교해도 약 5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서초동 A공인 관계자는 “서초 자이르네는 가장 저렴한 주택형의 분양가가 6억 3014만 원이다. 최소 6억 원대에 강남 입성이 가능하다”며 “소규모 단지지만 입지가 좋아 입주 이후에는 주변 집값까지 고려하면 놀라울 정도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 자이르네 분양에 한바탕 매서운 청약 광풍이 불자 시장의 관심은 21일 1순위 청약을 받는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단지)에 쏠리고 있다. 이 아파트 역시 총 100가구 규모로 청약 모집 가구수는 37가구에 불과하다.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은 평균 분양가가 3.3㎡당 2569만 원으로 매겨졌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인 지난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통보받은 3.3㎡당 분양가(2730만 원) 대비 161만 원 낮다. 전용 59㎡형은 6억4200만~6억7200만 원, 전용 84㎡형 분양가는 8억3100만~8억6600만 원대다. 지난해 입주한 인근 ‘고덕 아르테온’(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아파트) 전용 84㎡형 매매가격이 16억~18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많게는 10억 원 정도 저렴하다.

시장에선 청약 당첨 문이 갈수록 좁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로 신규 공급이 갈수록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청약경쟁률만 높아져 ‘희망고문’이 그만큼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청약 가점 65점도 안산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50~60% 수준으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며 “서울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만 300만 명이 넘어 과열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서울시 공공재개발 사업 20곳 이상 신청

공공재건축 15곳 사전 컨설팅

서울시 공공재개발 사업에 20곳 이상 지역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건축은 총 15곳이 사전 컨설팅을 접수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0일 서울 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공공재개발 사업은 20여 곳이 신청했고, 공공재건축은 15곳이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공공재개발은 입지 여건과 구역 특성 정책 일관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할 것”이라며 “공공재건축은 주민동의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선정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서 권한대행은 “정부와 서울시는 8·4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 이견은 없다”며 정부와 협의해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공공재건축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재건축 주택 수를 최대 2배로 늘리는 사업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0월호 발매

COVER STORY

코로나블루, 플랜테어로 마음의 근육을 키우다

PART1. 반려식물과 살아가기 코로나블루, '식물을 차분합니다'

PART2. 마음을 치유하는 홈가드닝 화분 가꿨더니 마음에도 색이 났네

PART3. 집 안에서 즐기는 열대림 개성만점 열대식물 매력 탐구

PART4. 플랜테리어 A to Z '녹색손'을 향한 공급층 10가지

PART5. 인택트 시대 식물 키우기 분양부터 상담까지 휴대용 하나면 끝!

신라보가 만난 사람들

멋진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려 쓰는 열고 싶은 진짜 어른
자적인 차이나 대표가 개척하는 '그레이드 그레이'의 매력

인류를 향한 애정이 마침내 열매로 달다
두 개의 임원직을 총괄해 박사, 토종 김치 유산균으로 새로운 '송무수'

모르고 싶어도 관점이, 살아나기를 함께 해 나니
정재현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더불어 숲

하필이면 왜 정자나무 아래에서?

자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곳을 떠도는 여행만큼 즐거운 게 있을까. 생활의 굴레에서 해방된 자유, 도취할 수밖에 없는 무연한 이벤트들과의 만남, 그러기에 흔하디 흔한 '나를 위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여행을 즐긴다. '스리랑카주머니' 고선정은 흠 다르다. 그는 여행으로 삶을 통해 뒤집었다. 종전의 관습을 획기적으로 바꾸었으니 반전이자 반역?이다.

김해영의 느린 여행

싸목싸목 떠나는 나주식당 여행

바람이 서늘해져서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건 인자상정인가보다. 자연들과 서울을 곁잡 맛집 정보를 공유하다 멀리 나주곰탕 이야기로 옮겼다. 골짜기 군침 넘여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주곰탕, 돼지국밥처럼 향토색 강한 음식은 타지역에서 먹으면 왠지 그 맛이 안 난다. 곰탕 먹으러 나주에 갈 거라는 내 말에 지인들이 손가락을 얹었다. "나주곰탕 토장 부릭해" 말은 이렇듯 그들도 안다. 나주곰탕은 나주에서 먹어야 제맛인 것일.

임마가 임마에게

피로 해소와 노안에 좋은 어패류와 녹황색 채소 레시피

명사·명작 돌아보기

골목재미 간해버린 회차원의 끝

"한 번 청산에 들면 다시는 나오지 않으리"

삼삼오오 50+ 커뮤니티

따뜻한 마음 포착 훈훈한 보람 활력

같은 것을 찍더라도 어떤 사진에는 그 순간의 감동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피사체를 향한 사진가의 진심과 애정이 깃들었기 때문일 테다. 그렇게 온기 어린 사진으로 온정을 담아 따뜻한 사진을 찍는 이들이 있다. 바로 '따사모' 커뮤니티다.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1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국내 1호 영리병원 사실상 무산

법원 “허가 후 3개월 내 문 열었어야… 제주지사 재량권 남용 아냐”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수석 부장판사)는 20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녹지제주)이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녹지제주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날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 결정하기로 했다. 병원의 개설 허가 자체가 취소되면 내국인 진료 조건 관련해선 소송 대상이 사라져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제주도 ‘조건부 허가’=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는 내용의 조건을 달아 개설 허가를 내줬다. 공공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을 염려한 조치였다.

녹지제주는 진료 대상에 내국인을 제외

한 허가 조건이 의료법을 어겨 위법하다며 지난해 2월 14일 제주도의 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녹지제주는 “국내 모든 의료기관은 어떤 환자인든 인도의적 차원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료법에 규정돼 있다”며 “영리병원도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지난해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의료법에 따라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에 반발하며 지난해 5월 20일 법원에 소송을 재차 냈다.

◇제주도지사 ‘재량권’ 두고 법리 다툼=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제주도의 의료기관 개설 조건부 허가의 적법성을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녹지제주 측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됐으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았다”며 “허가 취소와 관련해서도 도지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측은 “녹지제주가 병원을 우선 개설하고 차후에 허가 조건에 대한 하자를 다룰 수 있음에도 개설을 늦춘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법원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면 경제성이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렵고 진료 거부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이 있다는 녹지제주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히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엔 누구도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설 허가의 공정력이 있는 이상(제주도의) 개설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개설 허가에 위법이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종용 기자 deep@



덕수궁 수문장 교대식 재개

2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중단됐던 수문장 교대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檢 ‘라임 검사 로비 의혹’ 전담수사팀 꾸린다

남부지검 검사 5명 투입

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 관련 ‘검사 로비 의혹’ 수사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한다.

남부지검은 20일 라임 로비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 5명으로 구성된 ‘라임 사태 관련 검사 항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금융조사부 검사 4명, 형사4부 검사 1명 등 총 5명이다. 수사지휘는 김락현 형사6부장이 맡는다. 형사6부는 현재 라임 사건의 금융사기와 횡령 부분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남부지검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A 검사를 형사6부에서 형사4부로 이동시켰다.

라임 사건에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6일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사 접대 의혹을 제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주임 검사 출신인 B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

사 3명을 만나 1000만 원 상당의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1명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도 했다.

전날 추미에 법무부 장관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판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상 세 번째다. 이 중 두 번을 추 장관이 했다. 이전 수사지휘권 발동은 3개월 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이뤄졌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의혹 사건은 모두 5건으로 △라임 수사 검사 비위 의혹 사건 △코나2컨텐츠 전사회 협찬금 수수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요양병원 요양급여비 편취 수사 무마 의혹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무마 의혹 사건 등이다. 라임 수사 관련 의혹 사건을 제외한 4건이 윤 총장과 그의 가족과 관련 있다. 박기영 기자 pgy@

〈전 제이유그룹 회장〉

‘감옥서 또 1100억 사기’ 주수도 징역 10년 추가 확정

2조원 대 사기로 수감 중 범행

2조 원대 피라미드 사기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수감 중 또 사기 행각을 벌이다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 씨는 2조 원대 피라미드 방식의 사기를 벌이다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주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2013년 측근 A 씨 등을 이용해 불법 단단계 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1137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재심 사건을 위한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출하고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은닉 혐의도 있다.

1심은 “불법 피라미드 판매 범죄의 특성

상 다수 피해자의 가정과 인적 관계를 파괴하는 등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며 주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라미드 판매 영업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에서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또다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44억 원을 추징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감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됐지만 15억 원 상당의 사기 편취금액이 추가로 인정돼 형량이 늘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야흐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다.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정장년, 피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벼락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만만하지 않다. 실재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을 유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누얼과 다르다만데, 선배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왔을까? 공공단체가 재공해주는 대누얼 달고 실천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으며, (주)O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천 대누얼 이자, 혹독한 성장일기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예시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선배로서의 책임감에서 출판해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를 주는 멘토도 선택도 없어서 참 힘들었다. 기업의 기본인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아찔한 경험,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기까지 자신과 구성원들의 평가 열정, 재정적 위기의 순간 등 그간 겪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유머러스하게 펼쳐진다. 그는 아무리 역경과 난관이 오더라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관에 대한 믿음,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육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역별 지원 제도와 혜택, 구성된 재능 평가, 마음의 자세,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이나현 지음 / 208쪽 / 국문판형 / 14,800원

용인시 공고 제2020-2110호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266-4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약식평가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266-4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약식평가서) 보고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용인시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266-4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266-4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 19,525㎡(연면적 : 124,489.7066㎡(지상 83,064.7266㎡, 지하 41,424.9800㎡))
라.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마. 사업시행자 : 더시너지1 주식회사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0. 10. 21. ~ 11. 18. [근무시간(09:00~18:00)내,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나. 공람장소 : 용인시청 주택과(12층)

3. 주민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20. 11. 4.(수요일) 14:00
나.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로 342번길 34(4/5층, 스페이스어스)

4.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나.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양식) 작성 후 용인시청 주택과 제출
다. 제출내용 : 환경영향평가(약식평가서)에 관한 의견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

5.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주택과(031-324-2404)와 더시너지1 주식회사(02-3445-0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극단 라하프 단원들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라는 설 자리를 만듭니다

하나금융그룹 파워온임팩트

발달장애인들이 취업을 통해서
혼자만의 힘으로 설 수 있도록
자신만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은 일자리 만들기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발달장애인들의 강점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일job를 만드는 사회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QR코드를 찍어
[엄마의 졸업식]
Full 영상을 감상해보세요



극단 라하프 연출 이한길

극단 라하프 단원 한소라

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홍석진

스프링샤인 도예가 이재영

스프링샤인 도예가 안윤주

소소한 소통 사원 이주형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가사 사건 소송은 ‘재판 후의 삶’까지 염두에 뒤야”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상속가업승계팀 공동팀장

이혼·상속 등 가족간 다툼, 재판서 불필요한 상대 자극 없게
법관 시절 만든 ‘성년후견’ 법리 롯데 경영권 분쟁 종결 역할

“가사 사건은 소송 결과보다 전반적인 마인드 케어가 더 중요합니다. 애초에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자문을 통해 상속 등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소송까지 갔다면 ‘재판 후의 삶’까지 염두에 뒤야 합니다.”

김성우(사진) 법무법인 율촌 상속가업승계팀 공동팀장(사법연수원 31기)은 20일 가사 사건에서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부분을 이같이 조언했다.

가사 사건은 가업승계·조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얹혀 있으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간의 감정싸움이 격화하기 쉽다. 이는 조세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율촌이 관련 전문가를 모아 ‘드림팀’을 구성한 이유다. 율촌 상속가업승계팀은 상속이나 이혼

등으로 가족이 법정 다툼을 벌일 때 당사자가 받는 스트레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혼이나 상속 사건은 가족과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다투기 때문에 상대방과 함께 자신이 살아온 과거까지 함께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하면서도 ‘그럼 저런 사람과 살아온 나는 뭔가’하는 자괴감도 들게 합니다. 재판 후의 삶 역시 중요합니다.”

그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 전문 법관으로 6년간 근무하면서 상속·성년후견·가사분쟁·소년사건 등을 전담해왔다. 율촌은 지난해 2월 김 변호사를 필두로 상속가업승계팀 신설했다.



김 변호사의 법관 경력은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비난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법관이 어떤 내용을 주로 보는지 경험을 통해 아는 만큼 재판에서 불필요하게 상대방을 자극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

그는 법관 재직 당시 성년후견제도 관련

법리를 만들었다. 성년후견제도란 판단능력이 충분치 않은 고령자나 장애인의 재산과 신상을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법률제도다. 이 제도는 이전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제도에 대한 개선안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처음 만들어지는 제도였기 때문에 교범이나 매뉴얼 등 시스템적인 부분이 전무했죠. 법관 시절 이를 정립했습니다. 제가 만든 판결 문구가 현재 관련 재판에도 빈번히 인용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처음 만들어졌지만,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김 변호사가 2015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소송지휘를 맡았던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한정후견개시 사건’ 때다. 신 회장 사건은 롯데그룹에서 벌어진 ‘형제의 난’에서 경영권 분쟁을 종결하는 역할을 했다.

“백세시대에 가사 사건은 국민 모두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아직 먼 미래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상속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받는 등 미리 준비해야 남은 가족들을 분쟁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박기영 기자 pgy@

제11회 두산연강예술상 시상식
공연 윤혜숙·미술 김경태 씨 수상



두산연강재단은 19일 서울 종로5가에 있는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에서 ‘제11회 두산연강예술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수상자로는 연출가 윤혜숙 씨(공연 부문·왼쪽 사진)와 미술작가 김경태 씨(미술 부문·오른쪽)가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2억 원 상당의 혜택이 주어진다. 각각 상금 3000만 원을 비롯해 공연부문 수상자에게는 8000만 원 상당의 신작 공연 제작비, 미술 부문 수상자에게는 6000만 원 상당의 두산갤러리 서울 전시비용을 별도로 지원한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한독·대한약학회 ‘한독학술대상’
서영준 서울대 약학대 교수 선정

한독은 대한약학회와 공동 제정한 제51회 ‘한독학술대상’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서영준 교수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영준 교수는 1996년부터 국내에서 다 소 생소한 연구 분야였던 ‘화학적 암 예방’ 분야를 꾸준히 연구해 국제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이 분야의 대표 학술지 ‘네이처 리뷰 캔서’에 국내 학자 최초로 초청 논문을 게재했으며 현재 이 논문은 전 세계 암 예방 연구자들에게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 서 교수는 톰슨 로이터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 학자들의 발표 논문 인용도를 데이터 분석해 선정한 ‘국내에서 가장 논문 인용도가 높은 16인’에 꼽힌 바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GC녹십자의료재단 이은희 이사장

임상검사 전문의료기관인 의료법인 GC녹십자의료재단이 이은희 원장을 새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은희 신임 이사장은 1990년 녹십자의료재단에 부원장으로 입사해 2007년부터 GC녹십자의료재단 원장을 맡고 있다. 이 신임 이사장은 1986년 이화여자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교에서 중앙면역학 분야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2010년에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개원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한 임상화학회 이사, 대한 정도관리협회 대의원을 역임했다.

박미선 기자 only@

“그와 사적인 감정은 없고 순전히 비즈니스일 뿐” 트럼프 “재앙” 독설에 ‘대부’ 대사 응수한 파우치



앤서니 파우치(오른쪽 사진)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이 자신을 ‘재앙’이라고 부른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영화 ‘대부’의 대사로 응수했다. 미국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와 대통령이 갈등을 빚는 모습에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파우치 소장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지역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사적

인 감정은 없고 순전히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는 영화 ‘대부’의 대사를 인용한 것으로,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만이 내가 신경 쓰는 유일한 것”이라며 “나는 그저 내 일을 하고 미국 국민을 돌보고 싶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파우치 소장은 “대통령과 내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은 만들고 싶지 않다”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방역을 잘해 왔던 주들이 점차 확산세를 보인다”며 “이것이 우리가 집중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프 참모진과의 전화 회의에서 “파우치 소장은 재앙”이라며 “사람들은 파우치와 모든 바보들의 말을 듣는 데 지쳤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는 “파우치 소장이 우리에게 자신을 TV에 내보내지 말라고 해놓고 그 누구보다 활발하게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며 “더 좋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공격했다.

이는 파우치 소장이 이날 새벽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학

을 믿으면서도 나약해 보일까 봐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말한 데 대한 비난으로 풀이된다. 파우치 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광고에 자신의 발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설에 공화당 소속 러마 알렉산더 상원 보건위원장은 “파우치 소장은 미국의 저명한 공무원 중 한 명”이라며 “그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면 코로나19 확산 사례가 줄어든 것”이라고 파우치 소장을 옹호했다. 최혜림 기자 rog@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남, 일본 롯데 입사

신 회장 승계 과정과 닮은꼴... 3세 경영 준비 분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34·사진) 씨가 최근 일본 롯데 계열사에 입사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롯데그룹의 3세 경영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유열 씨가) 최근 일본 롯데의 한 계열사에 입사한 것은 맞지만 입사 시기 등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신 씨는 일본 게이오(慶應)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영학석사

(MBA) 과정을 밟았으며 노무라증권 싱가포르 지점 등에서 근무했다.

신 씨의 일본 롯데 입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롯데가 3세 경영 체제 준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신 씨가 아버지인 신동빈 회장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어서다. 신동빈 회장 역시 일본에서 대학(아오야마 가쿠인대)을 졸업한 뒤 컬럼비아대에서 MBA를 받았다. 신 회장은 노무라증권 런던지점과 일본 롯데당사를 거쳐



1990년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에 입사하며 한국 롯데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다만, 3세 경영에 앞서 선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만큼 아직까지 3세 경영을 언급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 회장은 일본과 한국 이중국적 상태에서 일본 국적을 포기했지만, 신 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일본에서 나고 자란 신 씨는 한국어 구사 능력도 뛰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기아차 ‘케이-모빌리티케어’ 보고회



기아차는 19일 서울 구로구 기아차 고객센터 사업부 사옥에서 사회복지관 노후차량 정비지원사업 ‘케이-모빌리티케어’ 보고회를 진행했다. 앞줄 왼쪽부터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김경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공헌 본부장, 박상덕 기아자동차 고객센터사업부장, 이영호 전국기아오도류연합회 회장.



‘NYT·포드’ 로고 만든 서체 디자이너 뱅기어트 별세

뉴욕타임스(NYT)와 포드, 플레이보이 등 유명 브랜드의 로고 서체를 개발한 서체 디자이너 에드 뱅기어트가 별세했다. 향년 92세다.



19일(현지시간) NYT에 따르면 뱅기어트는 15일 뉴저지주에 있는 자택에서 별세했다. 1927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그는 백화점 체인 블루밍데일의 디스플레이 책임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9세 때부터 디자인 도구를 가지고 놀았다. 젊은 시절 그는 재즈 밴드의 드럼 연주자로 활동하며 인정을 받았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며 뒤늦게 디자이너의 세계에 입문했

다.

뱅기어트는 러시아계 미국인 서체 디자이너 폴 스탠다드 아래에서 그래픽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를 배웠다. 1953년 남성지 ‘에스콰이어’에 디자이너로 들어간 그는 서체 디자인에 뛰어난 실력을 보였고, 1970년 최초의 서체 디자인 회사 ITC의 설립에 참여해 부사장으로 일했다.

에스콰이어의 로고와 NYT의 제호를 포함해 코카콜라의 ‘다이어트 코크’, ‘포드’, ‘에스티모더’ 등 유명한 로고는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의 로고를 디자인하며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했다.

최혜림 기자 rog@

부음

▲홍현표(전 전주농지개발조합 감사) 씨 별세, 홍성란(다비수 용산지사장)·성범(한국자동차산업협회상무)·성훈(태강투자개발 대표이사)·영주(한신종합기술 대표이사) 씨 부친상 = 20일, 서울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2일 오전, 02-860-3502

▲최준근 씨 별세, 손승화(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시장팀 과장) 씨 장인상 = 20일, 여주시 여수제일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발인 22일 오전 8시, 061-692-4444

▲홍길 씨 별세, 김주원(변호사·전 대한변협 사무총장) 씨 장인상 = 20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4호, 발인 22일 오전 8시 30분, 010-2278-4634

▲백본이 씨 별세, 원윤희(전 서울시립

대 총장)·영귀(텍슬케미언스 상무이사)·명희(사업) 씨 모친상, 조숙희(중앙대 교수)·권혜영(교사)·김우정(약사) 씨 시모상 = 19일, 서울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2일 오전 8시, 장지 국립이천호국원, 02-860-3501

▲이재용 씨 별세, 이옥현(자영업)·육자·옥경(상경중 교사)·강현(삼성SDS부장) 씨 부친상, 장의식(SR타임스 대표이사)·신관수(경기기계공고 교사) 씨 장인상 = 2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2일 오전 7시, 02-3410-6903

▲연도희 씨 별세, 연기용(괴산군 균형개발과장) 씨 부친상, 성영옥(괴산군보건소 방문보건팀장) 씨 시부상 = 20일, 괴산 성모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22일 오전 8시, 043-833-4411

인사

◆문화재청 ◇과장급 전보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장 김지성 ◇과장급 임용 △문화재청한국 국제협력과장 조동주

◆특허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전보 △특허심판원 심판장 김명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황호윤

◆국제신문 △편집국장 오상준 △사업국장 강준진 △독자서비스국장 정순백 △디지털국장 이노성 △논설위원 이승렬 △기획실장 권혁범 △편집국 선임기자 구시영 △ “이홍근 △” “조봉권 △서울본부 본부장 손준근 △” 선임기자 김경국 △견고싶은 부산, 스토리텔링협의회 상임이사 오광수

미국은 지금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재정적자 누적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정부 조세수입의 보전을 위하여 디지털서비스 부문의 공통 다국적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세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 디지털서비스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우버 등은 모두 예외 없이 미국 기업이다.

전 세계를 전대미문의 혼돈과 절망의 시대로 몰아가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수습의 가닥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코로나가 초래한 언택트 시대의 또 다른 풍경은 이미 세계경제의 강자로 군림해왔던 미국 디지털서비스 기업들의 위세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실물경제는 가사상태로 접어들고 있는데 디지털서비스 산업만 그 가치와 수익이 전에 없는 속도로 늘어나면서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통제 불능의 수준이었던 빈부격차와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분열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로 인한 전대미문의 의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가운데 코로나 위기가 초래한 실물 부문의 공급사슬과 수요 부문의 동시 붕괴에 대처하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확장재정과 통화정책을 수행하면서 세계경제의 불안요인도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재정적자 누적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정부 조세수입의 보전을 위하여 다른 산업들에 비하여 매우 낮은 조세 부담을 해왔던 디지털

서비스 부문의 공통 다국적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세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의 국제 조세체계에 의하면 다국적기업들이 세계 각지에서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세권을 부여하였다. 세계 디지털서비스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우버 등은 모두 예외 없이 미국 기업이다. 그 결과 이들 기업들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미국 기업을 특정한 차별적 조세규제라고 주장할 여지를 남겼다.

유럽연합(EU)이 추산한 기업들의 실효 세율을 보면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우 평균 23.2%이지만 디지털서비스 기업은 9.5%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서비스 기업들이 터무니없이 낮은 조세 부담을 하는 주된 이유는 디지털산업의 기술적 특성상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도 해외시장에 원활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서비스 산업의 주된 자산이 대부분 무형자산이기에 고정사업장을 세율이 낮은 조세회피 국가로 자유롭게 이

동할 수 있다는 점이, 결과적으로 공통 디지털기업들이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

EU 주장에 대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만약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이 해외시장의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부가가와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 조세당국의 과세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전통산업도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통해 수익 창출을 하는 소비자대면업종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또한 미국의 이런 주장은 정치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디지털세 도입에 대하여 미국을 포함한 다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자국 시장에서의 디지털서비스 판매액에 대하여 3%의 조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미국 기업들의 추가 조세부담액의 5배에 해당하는 프랑스 물품에 대하여 응징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프랑스는 디지털서비스세 부과를 유예하고 미국 또한 그 기

간 프랑스에 대한 추가 과세를 유예하여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가까스로 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언제든지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불안한 국제 무역환경과 함께 주목할 대목은, 모두가 희망하는 대로 내년 중반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질병통제 수준이 과거의 안정기로 돌아가더라도 전반적인 경제 환경과 기업 여건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점이다. 전 세계 기업들을 모두 아우르는 디지털플랫폼에서 생존 확률이 낮은 기업은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냉정한 현실을 우리 기업과 정부는 주목해야 한다.

이처럼 디지털세 도입 과정에서 더욱 불확실해지는 국제 통상환경과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무한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술적 시장 지배력 확보이다. 그런 맥락에서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보다는 재정지출 확대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정책이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에 처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실질적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인지 기업 입장에서 한번 더 냉철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IFK임팩트금융 대표

요즈음에는 은행 갈 일이 별로 없다. 세금과 공과금도 자동이체로 결제되고, 웬만한 지출은 카드나 휴대폰 또는 인터넷으로 대신하니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이전에 현금을 잔뜩 넣고 다니던 지갑은 사용하지 않은 지 이미 오래되었고, 대신 카드 몇 장과 명함을 보관하는 조그만 케이스만 가지고 다닌다. 혹시 몰라서 만 원짜리 지폐를 그 사이에 넣고 다니지만 별로 쓸 일이 없다.

불현듯 ‘은행원들은 무엇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많은 업무가 자동화되고 비대면 영업이 확대되면서 손으로 하던 일들을 기계가 대신한다. 창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줄어들면서 점포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은행들은 영업점을 통합하거나 폐쇄하고 있다. 이전에는 은행들이 비싼 임대료를 내더라도 사람들

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영업점을 만들려고 서로 경쟁하였지만, 이제는 1층에 자동화 창구만 놓고 2, 3층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종종 본다.

은행 입장에서는 많은 영업 창구와 인력이 필요 없어 직원과 점포의 수를 축소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이 운영하는 영업점 수가 최근 5년 동안 700개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점이 줄어든다니 직원 수는 말할 것도 없다. 그 감축의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은행은 주식이 상장되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이다.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여 주주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실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경영진은 교체된다. 경제 논리에 따라서 경영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산업보다 더 강도 높은 감독을 수행한다. 디지털 경쟁이 심화되고 코로나19와 같은 사회변화로 급속한 비대면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포망의 축소와 그에 따른 인력의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직장을 떠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직장을 잃은 은행원들은 재취업의 기회를 얻기가 힘들다. 또한 고령자 장애인 등과 같이 인터넷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악화되어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고 비대면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는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는 은행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은행은 다른 기업보다 특별히 공공성이 강한 조직이다. 은행은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인 동시에 공공성을 지닌 기관이다. 그래서 설립할 때에도 엄격한 인허가 과정을 통하여 진입장벽을 만들어 주고 철저히 감독한다. 금융위기로 은행이 어려울 때에는 국민의 세금이나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하여 지원해 주기도 한

다. 금융회사인 은행을 많은 사람들이 금융기관으로 부르는 이유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은행 지점의 폐쇄절차 모범규준을 만들고, 은행연합회도 포용적 금융 차원에서 적정 수의 점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은행에 대해 무작정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 창출이 최우선인 금융회사에게 고용 유지와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강제로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은행의 선택이다. 핀테크와 비대면 거래의 확장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인 현상이다. 은행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를 정하여야 한다. 핀테크의 발전과 더불어 심화되고 있는 산업 내에서의 경쟁구조에서 살아남고, 적절한 수익을 창출하면서 공공성이 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것은 은행이 감당해야 할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은행의 새로운 도전

이투데이, 말투데이

☆ 카트린 드뇌브 명인

“사랑은 고통이다. 항상 한쪽이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

카트린 드뇌브라는 예명으로 잘 알려진 카트린 파비엔 도를레아크는 프랑스 배우. 대표작은 ‘헬무트의 우산’ ‘리스본 특급’ ‘인도차이나’ ‘상류사회’ ‘파비안느에 관한 진실’ 등. 오늘은 그녀의 생일. 1943~.

☆ 고사성어 / 상사병(相思病)

남녀가 그리워하여 생기는 병을 일컫는 말. 출전은 수신기(搜神記). 송(宋)나라 강왕(康王)이 부하 한빙(韓憑)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고 남편을 멀리 보내버렸다. 아내를 그리다 한빙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아내 하 씨도 성 위에서 몸을 던져 죽었다. 화난 강왕이 두 사람의 무덤을 서로 떨어뜨려 놓았다. 무덤에서 자란 나무 두 그루 위에서 한 쌍의 원앙새가 슬피 울자 사람들이 원앙새를 죽은 부부의 님으로 보고, 그 나무를 상사수(相思樹)라고 불렀다.

☆ 시사상식 / 소멸위험지수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 이 지수가 0.5 이하일 때 소멸 위험이 크다. 수치가 낮으면 인구 유출·유입 등 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 약 30년 뒤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용정보원은 2019년 10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97곳(전체의 42.5%)이라고 발표했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상수리

‘상수리나무 상(橡)+열매 실(實)’인 상실(橡實)이 변했다.

☆ 유머 / 정신병도 가지가지

스스로 빠다귀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완치돼 퇴원했다. 문 앞에서 개를 본 청년이 새파랗게 질려 병원으로 뛰어 들어왔다. 의사가 “당신이 빠다귀가 아니라는 거 알지 않소?”라고 말하자 청년의 대답. “나만 알면 뭐해요? 개가 아직도 나를 빠다귀로 알고 있는데.”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이정필 부동산부/roman@

주거 서민층 평생 월세살이 만드는 당정

주는 데 돈을 받는 임대인도 등장했다.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급하게 내놓은 정책이 빚어낸 현주소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정부가 임대인은 ‘갑’, 임차인은 ‘을’로 설정한 이분법적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직주근접성이나 자녀 교육 등 저마다의 사정에 맞

춰 자유롭게 전세를 놓고 전세에 들어가는 시장에 족쇄를 채우니, 매물이 마르고 가격은 치솟는 반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임대차법에 앞서 쏟아낸 규제들로 집값이 급등한 와중에 전셋값도 이를 뒤따르면서 서민들의 선택지는 갈수록 좁

만인대 만인의 투쟁. 정부가 서민을 보호하겠다고 내놓은 개정 주택임대차법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사이를 하루아침에 이 웃에서 주적으로 갈라놓았다.

전월세상한제로 인상률을 5%로 제한하니 이를 피한 신규 계약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기존 2년에 2년을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놓고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집주인들은 치솟는 시세에 맞춰 호가(부르는 값)를 높이고 전세보증금 외에 따로 추가 월세를 청구한다.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른 집을 구할 때 드는 이사비용 등 일부 자금을 보태 달라고 요구한다. 전셋집을 보기 위해 긴 줄을 서는 임차인과, 전셋집을 보여

시간의 궤적 - ③ 전주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전주에 도착하면 ‘호남제일문’이라고 쓰인 현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일주문 위에서 방문객을 반겨주고 있다. 내 고향 전주는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는 자부심과 호남에서 제일가는 도읍이라는 긍지가 흘러넘치는 곳이다.

나에게 전주는 어릴 적 ‘명심보감’을 배우러 다니던 서당의 기억에서부터 낯시를 좋아하시던 아버지를 따라 낚시반 구경 반으로 다니던 운암 저수지(지금의 옥정호)의 추억이 쌓여 있는 곳이다.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있는 경기전은 이곳이 조선 왕조의 발상지임을 보여주었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전동 성당은 근대화 시기의 종교와 문화 충돌의 흔적을 남겨 두고 있다. 지금은 성공적으로 한옥 마을이 관광상품이 되어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도시가 된 전주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나에게 전주는 항상 안타까운 사랑의 대상이었다. 언제나 같이 있고 싶고 그 품에 안기고 싶은 곳, 그래서 더 잘되기를 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 고향이었다. 문화와 예술 그리고 삶의 가치를 우선하는 지역 문화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곳, 그래서 경제적인 성취보다 사람 됨됨이를 무겁게 생각하는 곳이다. 온 나라가 경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던 1970년대에도 번듯한 공장 하

조석의 遠見明察 (원견명찰)

현대일렉트릭 사장



나가 없던 도시, 인구수가 일곱 번째로 많다 하여 7대 도시라고 하지만 그에 걸맞게 지역 소득이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후대들을 위한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교육 도시라고 불리고,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던 곳이다.

지역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계기에는 나도 모르게 ‘실사구시’를 강조했다. 고향이 좀 더 잘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했었고, 후학들이 좀 더 여유로운 환경에서 커나가기를 바랐었다. 이념으로 현실을 지배하지 않고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이념이나 가치관을 새로 만들어가는 삶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압축 성장의 경제 시대가 저물고 질적 성장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지식 기반형 경제 구조로 변하면서 ‘전주의 힘’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오고 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새만금은 새로운 에너지 세계의 중심이 되어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

다. 태양광과 해상 풍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날아오르기를 준비하고 있다.

전주의 또 다른 가능성은 한류 문화이다. 과거 이 나라의 대표적인 예술 도시, 예향(藝鄕)이었던 전주는 이제 끊임없이 참신하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창조적 정신을 뛰어넘어 당당하게 세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세계적인 한류스타 방탄소년단의 뿌리가 전주인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전주에서 출발하여 전라북도 일대를 아흐레 동안 걸었다. 이곳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순례길’은 관용과 배려의 길이다. 길은 이 지역에 있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 모든 종교의 성지를 거쳐 간다. 전주의 전통 성당에서 시작하는 이 길에서는 천주교의 천호 성지, 나바위 성지와 초남이, 기독교의 금산 교회, 원불교의 금구 교당 그리고 송광사와 금산사를 만날 수 있다.

종교는 다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일 것이다. 나는 그것을 삶의 터전에서 더불어 평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의 궤적은 역사를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사람이 그리는 무늬를 보여준다. 한때는 치열했던 생각의 차이도, 종교를 대하던 모습도, 그리고 일상 속 삶의 애환도 ‘순례길’에 스며들어 굽이굽이 흘러간다.

유현희의 뉴스 카트



유통바이오부 부장대우

제조업과 유통업은 크게 생산시설의 유무로 분류된다. 제조업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한다면, 유통업은 별도의 공장은 두지 않고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의 유통만 담당한다. 이들에게는 공장 대신 창고가 무기다.

그러나 때론 창고가 없어도 유통사업이 가능하다. 그만큼 유통의 개념이 폭넓어졌기 때문이다. 소위 플랫폼 사업자는 모두 유통업자의 범주에 포함된다.

코로나19로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국내 최대 포털로 온라인 쇼핑 시장까지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한 네이버쇼핑을 유통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과거 제조업체의 ‘갑’이 백화점, 대형마트였다면 최근에는 플랫폼 사업자로 바뀐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 MD(상품기획 및 매입 담당)의 권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들의 갑질은 솔자리 안주거리로 자주 등장하곤 했다. 누군가는 ‘을’들의 뒷담화를 비집고 다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부당함을 주장하다 되돌아올 불이익을

플랫폼사업자 ‘갑질’ 얼마나 참아야 하나

감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10년 전쯤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몇몇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을 때다. 서로 경장하듯 ‘갑’에게 당했던 황당한 갑질을 털어놓는데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유통업체 MD로부터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며 자신들이 제조한 생활용품 시그니처 컬러와 다른 붉은색으로 한정판 패키지를 제작하라는 명령 아닌 명령에 당황스러웠던 일을 이야기했다. 식품업체에 종사하는 B 씨는 인기 상품의 공급 단가를 낮추라는 압박을 받아들이지 않자 매대에서 신제품이 모조리 사라졌던 아찔한 순간을 떠올렸다. 의류업체 C 씨는 매출이 부진하자 할인행사에 강제로 참여해야 했다. 그러나 할인 행사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결국 알짜 자리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다고 말했다.

네이버쇼핑은 간편결제인 네이버페이를 무기 삼아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네이버페이를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제품을 쇼핑 검색 상단에 노출시켜 입점업체들이 네이버페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것이 골자다.

배달 플랫폼들은 또 어떤가. 배달수수료를 인하했다며 상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소상공인들은 유료 광고에 가입하지 않으면 매출이 떨어지는 일이 다반사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과 과거 MD의 갑질이 묘하게 교차한다.

최근 소비자권익포럼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소비자설문을 통해 네이버페이의 검색 노출 행위에 10명 중 8명의 소비자들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 1위 배달의민족 역시 쿠팡이츠를 의식해 배달 속도전에 가세하겠다고 밝혔다. 빠른 배달이 경쟁력인 시대이지만 쿠팡이츠는 한명의 라이더에게 하나의 배달 물량만을 소화하도록 해 배달 시간을 단축했다. 그러나 점유율이 높은 배민이 쿠팡이츠와 같은 방식으로 배달할 경우 확보해야 할 라이더 수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기존 라이더들의 속도전에 불을 지필 것이라는 게 외식업계의 관측이다.

Merchandise(머천다이즈)의 약자인 MD가 ‘뭐든지(M) 다한다(D)’라는 뜻이라는 제조업계의 우스개가 있다. 이제 이 우스개의 주인공이 플랫폼으로 바뀌었다면 어쨌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검토한다고 한다. 공정위가 연주하는 ‘을’을 위한 행진곡을 기대해 본다.

yhh1209@

사설

“월성 1호기 폐쇄 무리수”라는 감사원 결론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작년 9월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한 지 13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심의·의결하고 20일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는 것이 골자다. ‘경제성 부족’으로 폐쇄했는데 이 결정 근거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경제성뿐 아니라 원전 안전성, 환경,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감사범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무리수였다는 얘기다. 월성 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이 2012년 11월까지였지만 개보수 비용 7000억 원을 들여 수명을 10년 연장해 2022년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월성 1호기도 빨리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2018년 6월 한수원이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내용이 계속 쪼그라들었다. 조기폐쇄 결정 이전인 2018년 3월 한수원의 자체 평가에서 즉시정지보다 계속가동이 3707억 원 이득으로 나왔으나, 5월 회계법인에 의해 1778억 원, 이후 224억 원으로 줄었다. 원자력계로부터 정권논리에 따른 껌맞추기라는 의혹이 커졌

고,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배경이다.

감사원 결론은 산업부와 한수원, 회계법인이 계속가동 때의 이득을 의도적으로 축소했음을 의미한다. 평가 기준인 원전가동률과 전력 판매단가 전망치를 낮추는 방식을 통해서다. 감사원은 또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2018년 4월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산업부 직원들은 한수원의 가동중단 결정에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가 나오도록 관여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한 엄정하고 분명한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공무원 등이 자료를 폐기하고 허위진술로 감사를 방해하는 등 엄청난 저행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월성 1호기 폐쇄의 경제성 평가에 국한된 감사와 결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결과는 정부 탈(脫)원전 정책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에너지전환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탈원전이, 심도 있는 타당성 연구도 뒷받침되지 않은 채 국가 에너지안보의 핵심인 원전을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폐쇄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수십 년 쌓아온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기술과 산업기반을 무너뜨리고 거대 수출시장까지 팽개치는 문제점도 수도 없이 지적돼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탈원전 정책의 궤도 수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원전 폐쇄를 둘러싼 갈등 또한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다.

세무, 특! 다주택 보유 시 종과되는 종부세

정부가 8월 12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을 대폭 상향했다. 취득·보유·처분을 모두 규제하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종과세 정책이다.

주택 보유 시 납부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0.5~2.7%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대해 0.6~3.2%의 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종과세 정책으로 내년부터는 기본적으로 0.6~3.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대해 1.2~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6%, 2주택 이하는 3%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직전 연도 대비 당해 연도의 종부세와 재산세 합산금액 한도를 정한 세부담 상한도 상향됐는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했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했다.

법인의 경우 기존 방식으로 법안을 적용할 경우 신규 법인 설립을 통한 분산 보유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는데, 이번에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공제액 6억 원 적용도 폐지했다.

뿐만 아니라. 법인도 종부세의 세율 상승과 공제액 미적용, 세부담 상한 폐지로 인해 주택 보유가 부담스럽게 됐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증가(2020년 90%→2021년 95%)와 기준시가 현실화에 따른 상승분을 고려한다면 종전에 비해 주택 보유에 따른 법인의 혜택은 대부분 사라졌다.

정부의 유례없는 대책으로 개인과 법인을 막론하고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다주택들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2021년 5월 말까지 다주택자들은 소유 주택 양도 등의 빠른 의사 결정이 필요한 시기다.

장윤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SAMSUNG

반가워요!
둘만의 새 출발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조금 서툴러도 걱정 마세요
복잡했던 세탁을 버튼 하나로
심플하게 끝내주는
그랑데^{AI}가 있으니까요

새로운 시작
AI로 맞추다
삼성 그랑데^{AI}



새로운 시작, 삼성 그랑데^{AI}가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최대용량의류케어 토큰혜택 2020.10.1 - 2020.10.31

삼성 그랑데^{AI} [24kg 세탁기+17kg 건조기] 및 삼성 에어드레서 대용량 동시구매시, 삼성 에어드레서 대용량 구매금액을 돌려받는 효과 (170만 포인트/캐시백)

※ 20년 7월 한국에너지공단 의무건조기, 드럼세탁기 품목 신고 기준 ※ 행사 대상 제품(삼성 그랑데^{AI})은 올인원 컨트롤 모델에 한함 ※ 일부모델 제외 ※ 에어드레서 대용량 리얼볼록(DF10T9301KG) 삼성닷컴 혜택가 기준 ※ 매장에 따라 혜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행사모델 및 사은품 등 상세 내용은 매장 내 판매상담사에게 문의바랍니다 ※ 본 행사는 행사매장 내 행사모델 구입시에 한하며 당사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구매 취소 및 반품 시 해당 혜택 및 사은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삼성전자 멤버십 고객대상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확인하세요

가전을 나답게.